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사업

A Study on the Value-Added Activity in Port Hinterland

2019. 10.

하태영 | 박주동 | 이수영 | 신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하태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수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연구원
	신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하태영 연구총괄, 제1장, 제1장, 제5장

연구진	박주동	제2장 제2절 일부, 제4장
	이수영	제2장 제2절 일부
	신정훈	제2장 제1절

발간사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과거부터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조달하여 이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통하여 경제발전(수출증대)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과거보다 국내 가공무역 구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점진적으로 가공산업이 크게 축소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국내 수탁가공 수출실적은 지난 10년간('08~'18)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13~'18)의 실적을 보면 연평균 1.8%로 크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가공 경쟁력이 이전보다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수출가공경쟁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중간 가공공정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의존하는 형태인 해외위탁가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08년 8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해외위탁가공은 '18년 197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현재에도 두 자리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가공경쟁력 저하가 수입측면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내 부가가치 활동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공산업은 수출과 수입 양측면에서 그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왔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산업국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한 가공산업 경쟁력은 자연스레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공무역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인력의존도가 높은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공산업에서 고급 기술수준의 경쟁력을 토대로 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 확대에 나뉘대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공무역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그 잠재력을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연구로서 우리나라 가공무역 경쟁력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으로 간주하고 항만배후지를 기준으로 그간 항만배후지의 가공무역 경쟁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2019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목차

❖ 요약 · i

❖ Executive Summary · vi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특징	2
1. 연구방법	2
2. 연구방법의 특징	3

제 2 장 우리나라 무역 구조 분석 · 5

제1절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구조	6
1. 수출 무역 구조	6
2. 수입 무역 구조	12
제2절 우리나라 가공 무역 구조	20
1. 우리나라 가공 무역 정의	20
2. 우리나라 가공 무역 실적 및 추이	24

제 3 장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 · 35

제1절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정의	35
1. 부가가치의 개념	35

2. 향만배후지 및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개념	36
3.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산정 방법	38
제2절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	40
1. 전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40
2. 부산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51
3. 인천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60
4. 여수광양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70
5. 울산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79
6. 평택·당진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87

제 4 장	품목별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 · 97
제1절 품목별 잠재력 분석	98
1. 부가가치활동 품목 현황	98
2. 수탁가공 품목별 잠재력	107
3. 보세가공 품목별 잠재력	110
제2절 주요항만의 품목별 잠재력	113
1. 부산항 품목별 잠재력	113
2. 인천항 품목별 잠재력	116
3. 여수광양항 품목별 잠재력	119
4. 울산항 품목별 잠재력	122
5. 평택·당진항 품목별 잠재력	125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9
제1절 결론	129
제2절 정책제언	133

표 목차

❖	
〈표 2-1〉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종류별 집계유형	7
〈표 2-2〉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종류별 실적	7
〈표 2-3〉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형태별 집계유형	9
〈표 2-4〉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형태별 실적	10
〈표 2-5〉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형태별 실적	11
〈표 2-6〉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종류별 집계유형	13
〈표 2-7〉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종류별 실적	14
〈표 2-8〉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형태별 집계유형	15
〈표 2-9〉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형태별 실적	16
〈표 2-10〉 우리나라 수입의 결제형태별 실적	19
〈표 2-11〉 우리나라 가공무역수출 실적 추이	24
〈표 2-12〉 가공무역수출 운송수단별 실적	25
〈표 2-13〉 가공무역수출 교역국가별 실적	27
〈표 2-14〉 가공무역(수출) 품목별 실적	28
〈표 2-15〉 우리나라 보세가공수출 실적 추이	30
〈표 2-16〉 우리나라 수탁가공수출 실적 추이	31
〈표 2-17〉 우리나라 위탁가공 수출 및 수입 실적 추이	34
〈표 3-1〉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41
〈표 3-2〉 전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43
〈표 3-3〉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45
〈표 3-4〉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46
〈표 3-5〉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49
〈표 3-6〉 전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50
〈표 3-7〉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52

〈표 3-8〉 부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53
〈표 3-9〉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55
〈표 3-10〉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56
〈표 3-11〉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58
〈표 3-12〉 부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59
〈표 3-13〉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61
〈표 3-14〉 인천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62
〈표 3-15〉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64
〈표 3-16〉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65
〈표 3-17〉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67
〈표 3-18〉 인천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68
〈표 3-19〉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70
〈표 3-20〉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72
〈표 3-21〉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73
〈표 3-22〉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75
〈표 3-23〉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77
〈표 3-24〉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77
〈표 3-25〉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79
〈표 3-26〉 울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80
〈표 3-27〉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82
〈표 3-28〉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83
〈표 3-29〉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85
〈표 3-30〉 울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85
〈표 3-3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88
〈표 3-3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90
〈표 3-33〉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90
〈표 3-34〉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92
〈표 3-3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94
〈표 3-3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94
〈표 4-1〉 전국 항만배후지 품목별 수출실적	98

〈표 4-2〉 HS-Code 품목명(1)	99
〈표 4-3〉 전국 향만배후지 품목별-기업규모별 수출실적	100
〈표 4-4〉 전국 향만배후지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101
〈표 4-5〉 상위 10대 품목별-지역별 부가가치활동 및 분포도	104
〈표 4-6〉 전국 향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07
〈표 4-7〉 HS-Code 품목명(2)	108
〈표 4-8〉 전국 향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109
〈표 4-9〉 전국 향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10
〈표 4-10〉 HS-Code 품목명(3)	110
〈표 4-11〉 전국 향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112
〈표 4-12〉 부산항 향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113
〈표 4-13〉 HS-Code 품목명(부산항)	113
〈표 4-14〉 인천항 향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116
〈표 4-15〉 HS-Code 품목명(인천항)	116
〈표 4-16〉 여수광양항 향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119
〈표 4-17〉 HS-Code 품목명(여수광양항)	120
〈표 4-18〉 울산항 향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122
〈표 4-19〉 HS-Code 품목명(울산항)	123
〈표 4-20〉 평택·당진항 향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125
〈표 4-21〉 HS-Code 품목명(평택·당진항)	126

그림 목차



〈그림 2-1〉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종류별 실적(2018년)	8
〈그림 2-2〉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형태별 실적(2018년)	11
〈그림 2-3〉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형태별 실적(2018년)	12
〈그림 2-4〉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종류별 실적(2018년)	15
〈그림 2-5〉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형태별 실적(2018년)	18
〈그림 2-6〉 우리나라 수입의 결제형태별 실적(2018년)	19
〈그림 2-7〉 우리나라 일반수출 vs 가공수출 개념도	23
〈그림 2-8〉 우리나라 가공무역수출 실적 추이	25
〈그림 2-9〉 가공무역수출 운송수단별 실적 및 비중	26
〈그림 2-10〉 가공무역(수출) 교역국가별 실적 및 비중	26
〈그림 2-11〉 가공무역수출 품목별 실적 및 비중	28
〈그림 2-12〉 우리나라 보세가공수출 실적 및 추이	29
〈그림 2-13〉 우리나라 수탁가공수출 실적 및 추이	31
〈그림 2-14〉 우리나라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 추이	32
〈그림 2-15〉 우리나라 위탁가공 수출입 실적 및 추이	34
〈그림 3-1〉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41
〈그림 3-2〉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비중추이(기업규모별)	42
〈그림 3-3〉 전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43
〈그림 3-4〉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45
〈그림 3-5〉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47
〈그림 3-6〉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50
〈그림 3-7〉 전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50
〈그림 3-8〉 전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	51
〈그림 3-9〉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52

〈그림 3-10〉 부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54
〈그림 3-11〉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55
〈그림 3-12〉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57
〈그림 3-13〉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59
〈그림 3-14〉 부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60
〈그림 3-15〉 부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60
〈그림 3-16〉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61
〈그림 3-17〉 인천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62
〈그림 3-18〉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64
〈그림 3-19〉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65
〈그림 3-20〉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68
〈그림 3-21〉 인천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69
〈그림 3-22〉 인천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69
〈그림 3-23〉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71
〈그림 3-24〉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72
〈그림 3-25〉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74
〈그림 3-26〉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75
〈그림 3-27〉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78
〈그림 3-28〉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78
〈그림 3-29〉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78
〈그림 3-30〉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80
〈그림 3-31〉 울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81
〈그림 3-32〉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82
〈그림 3-33〉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83
〈그림 3-34〉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86
〈그림 3-35〉 울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86
〈그림 3-36〉 울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87
〈그림 3-37〉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88
〈그림 3-38〉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89
〈그림 3-39〉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91

〈그림 3-40〉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92
〈그림 3-4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94
〈그림 3-4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95
〈그림 3-43〉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	95
〈그림 4-1〉 전국항 항만배후지 품목별 수출실적	100
〈그림 4-2〉 전국항 항만배후지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102
〈그림 4-3〉 전국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08
〈그림 4-4〉 전국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109
〈그림 4-5〉 전국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11
〈그림 4-6〉 전국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112
〈그림 4-7〉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15
〈그림 4-8〉 부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15
〈그림 4-9〉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18
〈그림 4-10〉 인천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18
〈그림 4-11〉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21
〈그림 4-12〉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21
〈그림 4-13〉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24
〈그림 4-14〉 울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24
〈그림 4-1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27
〈그림 4-1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127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연구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항만배후지를 항만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치는 경제적 세력권(hinterland)의 개념으로 보고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분석해 보았음
- ▶ 수출입 화물 중에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원자재 또는 중간재와 같은 미완성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임
- ▶ 이러한 미완성품은 수입국 또는 수출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제조·가공 활동(부가가치활동)을 거쳐 최종완성품으로 생산되어 현지국가에서 소비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정을 거침
- ▶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조·가공 활동(부가가치활동)이 항만배후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만배후지의 추가적인 제조·가공 활동을 통해 수출되는 실적을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으로 정의하고 그 실적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 활동 기반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 즉, 항만배후지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되는 가공수출무역 실적을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으로 정의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음

1) 연구방법

- ▶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정보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잠재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
- ▶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수집하는 수출입 무역정보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세정보자료를 다양하게 담고 있음
- ▶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정보에는 단순한 화물의 품목별 수출입액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교역국가/지역 기종점, 가공단계, 거래형태, 거래종류, 운송수단, 기업정보 등 상세정보를 담고 있음
- ▶ 이러한 무역정보 상세자료에 활용하여 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는 화물에 대한 제조·가공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과 그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음

2) 연구특징

- ▶ 무역정보자료는 과거부터 일정한 기준하에 정례적으로 자료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추이변화를 분석하는데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 본 연구에서 산정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만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 ▶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간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수행해온 항만배후단지확충, 자유무역지역 확대, 각종 제도개선 등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왔는지에 대해 가늠해 보는 유용한 기초자료라 될 것으로 기대함

2.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잠재력은 지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기준년도 '10년 1.00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11년 1.09의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18년 현재 0.6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특히,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잠재력은 '18년 0.63으로 산정되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 다만 부산항의 최근 3년('16~'18)간 실적에서는 '16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8년까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항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두 번째,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의 대부분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의 3개 항만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항이 부산항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 인천항의 경우 수도권을 인접에 두고 있고 대중국 교역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 세 번째는 중견·중소기업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다만,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가장 대표하는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항만을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실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네 번째는 항만배후지가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하나 이러한 현상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마지막으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탁가공 수출(국외 가공을 위한 수출)과 수입(국외 가공후 수입)의 경우에도 항만을 이용한 실적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내로 환원하는 노력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본 연구 결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을 좀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 또한, 수탁가공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못지않게 국내기업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 검토 및 지원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중장기적이 관점에서는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위한 자유 무역지역 확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변화를 정례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단하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우리나라 가공무역 기초정보자료와 분석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Analysis of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1. Purpose

- ▶ This study views port hinterlands as an economic territory to which economic factors and influences are affected. With this concept in place, this study analyzes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targeting major ports in South Korea.
- ▶ A large share of import-export cargoes include unfinished products, such as raw materials and intermediary goods along with finished products.
- ▶ These unfinished products go through additional manufacturing or processing activities (value adding activities) in either the importing or exporting nation, followed by production of finished goods. Following this, these products are consumed in a local nation to where production was finalized or re-exported to a third country.

- ▶ During this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by additional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activities (value adding activities) are required in port hinterlands.
- ▶ This study defines records of exporting products after additional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as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Having carried out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aforementioned records, this study looks into the changes of foundational conditions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domestic port hinterlands.
- ▶ In summary, the study defines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as records of exporting products after being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port hinterlands. Following this definition, the study analyzes relevant changes, while drawing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 ▶ A number of measures can be under consider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of port hinterlands as defined in this study. However, the present study chose to calculate potential power based on Korea's export-import trade information data.
- ▶ The export-import trade information data collected by the Korea Customs Office contains a wide array of specific

information that allows indirect assessment of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 ▶ Korea's export-import trade information data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along with export and import volume of cargo by product. This information contains specific details surrounding the trading country/local origin, the destination area of cargo, processing stage, types and forms of transaction, transportation methods and business information.
- ▶ Utilization of specific trade information allows for the analysis of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records of cargoes exported and imported through ports. In doing so, it helps analyze the potential power and changes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2) Features

- ▶ Data relevant to trade information has accumulated over time after being recorded on a regular basis under specific standards. Therefore, trade data can be effectively used for analyzing long-term changes to trends.
- ▶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that this study aims to define allows us to be able to assess changing trends from past to present, hence,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imating various effect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port policies over time.
- ▶ The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useful foundational data that

will estimate how effective a certain policy for increasing added value of the port industry is. Those involved with port industry have carried out various policy changes for increasing its added value, such as through increasing port hinterland complexes, expanding free trade zones and improving relevant systems.

3. Results

1) Summary

- ▶ First,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Korea's port hinterlands defined in this study has been on a continual decline since 2011.
- ▶ If the base year of 2010 is set as 1.00,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Korea's port hinterlands have constantly declined, reaching 0.68 in 2018 after hitting a peak of 1.09 in 2011.
- ▶ In particular, the potential power of Busan port, the largest port in Korea, was estimated to be 0.63 in 2018, showing a significant drop in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 ▶ However, recent performances over the last 3 years (2016~2018) of Busan port shows a moderate recovery after hitting its lowest point in 2016. This represents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being on a gradual incline in Busan port's hinterlands.
- ▶ Second, most of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is concentrated to three major ports of Busan, Incheon and Ulsan. In addition,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Incheon port is estimated similar to that of Busan port.

- ▶ Located close to metropolitan areas, Incheon port is highly competitive in having an advantage of trading with China.
- ▶ Third,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medium and small sized companies has been analyzed on a continual decline in port hinterlands.
- ▶ However, records of small-and-medium sized companies in processing trade on trust have increased as this type of trade well represents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 ▶ Fourth, although port hinterlands are highly likely to be located near ports, such tendency has shown on a gradual decline.
- ▶ Lastly, This study do not include export (export for outward processing) and import (import after outward processing) of processing on consignment in assessing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Since the records of this type of trade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return relevant records back to the nation.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olicy support not only for large companies but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continually increase the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 ▶ Furthermore, in case of processing trade on trust, domestic companies have as high potential power of value adding activities as foreign companies in port hinterlan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ffort and support for reviewing and preparing appropriate laws and systems against discriminative treatment towards domestic companies.
- ▶ In the mid-to-long term, efforts for expanding free trade zones should continue to promote and increase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It is expected that the foundational information data of Korea's processing trade as well as analysis results utilized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making a regular and consistent assessment of changes of value adding activities in port hinterlands as well as estimating the result of relevant policie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항만이 발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배후권역내에서 부가가치활동을 위한 기반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를 추정해보는 연구에 해당한다. 수출입 화물 중에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원자재 또는 중간재와 같은 미완성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완성품은 수입국 또는 수출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제조·가공 활동(부가가치활동)을 거쳐 최종완성품으로 생산되어 현지국가에서 소비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조·가공 활동(부가가치활동)이 항만이 위치한 배후도시나 지역인 배후권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만 배후권역내의 추가적인 제조·가공 활동을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으로 정의하고 그 실적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항만의 배후권역 부가가치 활동 기반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항만 배후권역에서 제조·가공되어 재수출되는 가공수출무역 실적을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정보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잠재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수집하는 수출입 무역정보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세정보자료를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정보에는 단순한 화물의 품목별 수출입액 뿐만아니라 각 화물별로 교역국가/지역 기종점, 가공단계, 거래형태, 거래종류, 운송수단, 기업정보 등 상세정보를 담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면 실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정보 상세자료에 활용하면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제조·가공 실적 추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의 특징

무역정보자료는 과거부터 일정한 기준하에 정례적으로 자료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추이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특정시점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추정하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간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수행해온 항만배후단지확충, 자유무역지역 확대, 각종 제도개선 등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왔는지에 대해 가늠해 보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우리나라 무역 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가공 무역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재료를 국외나 국내로부터 조달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은 그 활동자체가 부가가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실적을 분석하는데 가공무역 수출실적은 가장 기초자료이자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공무역은 거래유형에 따라 보세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무역의 성격을 살펴보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에 따른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¹⁾.

1)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유형의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가공무역을 보세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의 3가지 형태로 재정의한 것임

제1절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구조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실적은 관세청에서 집계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수출실적 통계는 단순히 거래 건별로 금액을 집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출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이에는 수출거래의 성격에 따라 크게 ‘거래종류’와 ‘거래형태’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적이 집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출입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실적을 집계하고 있어 자료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1. 수출 무역 구조

1) 거래종류별 집계기준²⁾

첫 번째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거래종류’별로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표 2-1〉). 유형별로 분류하면 ‘일반수출’과 ‘특수종류수출’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특수종류수출’은 수출화물의 생산지가 국내의 ‘보세공장’,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공해상’, ‘선상’, ‘우편’인 형태의 것을 말한다³⁾. 따라서 ‘특수종류수출’은 총 7개의 거래종류별로 수출실적이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어 자료의 활용성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수출’은 앞서 설명한 ‘특수종류수출’을 제외한 보편적

2) 자료 :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지식경제부, 2012)」 저자 정리

3) 특히, ‘관세자유지역’의 경우에는 국내 공·항만형 자유무역지대에서 수출되는 실적으로 항만부문에서 보면 항만배후단지에서의 실질적인 수출실적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되는 실적은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인 수출유형으로 국내 기업이 자사공장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모두 ‘일반수출’ 실적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유형 구분없이 실적을 총괄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표 2-2〉는 우리나라 총수출액으로 2018년 약 6,04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거래종류별로 ‘일반수출’이 3,751억 달러(6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세공장에서부터수출(28.9%)’, ‘선상수출신고(4.7%)’,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수출(3.0%)’ 순으로 집계된다.

〈표 2-1〉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종류별 집계유형

코드값		수출거래종류
1	A	일반수출
2	B	보세공장에서부터 수출
3	C	관세자유지역으로부터 수출
4	D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 수출
5	E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
6	F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의 현지수출(원양어업협회 통보분)
7	L	선상신고
8	P	우편수출(국제우체국 면허분)

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수출입 분류 기준)

〈표 2-2〉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종류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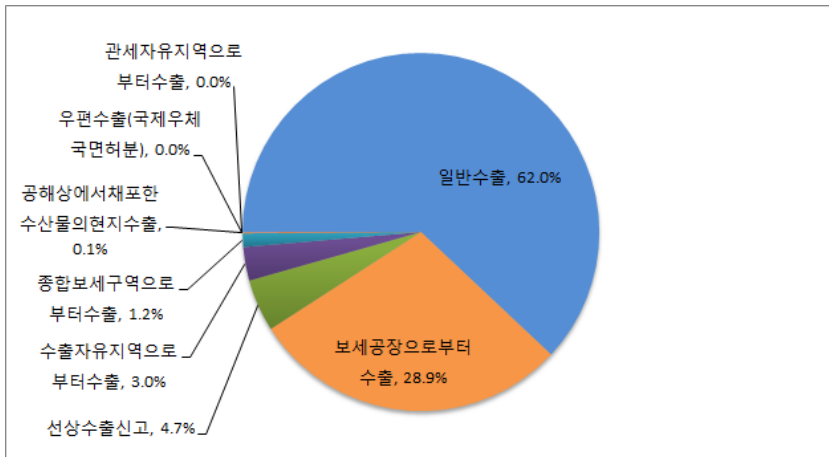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1	일반수출	321,915	354,613	375,117	62.0
2	보세공장에서부터수출	139,037	176,788	174,576	28.9
3	선상수출신고	16,719	20,244	28,585	4.7
4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수출	4,157	10,573	18,440	3.0
5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수출	13,040	10,692	7,399	1.2
6	공해상에서채포한수산물의현지수출	336	592	557	0.1
7	우편수출(국제우체국면허분)	214	183	162	0.0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8	관세자유지역으로부터수출	7	9	23	0.0
계		495,425	573,694	604,8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2-1〉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종류별 실적(20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거래형태별 집계기준

두 번째 ‘거래형태’의 수출유형에는 총 22개의 유형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집계가 되고 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형태수출’과 ‘특수형태수출’로 구분될 수 있다. ‘특수형태수출’에는 ‘전자상거래에의 한수출’을 비롯한 총 21개 유형의 수출실적이 별도로 집계되고 있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수형태수출’을 제외한 수출은 모두 ‘일반형태수출’로 분류하여 특별한 유형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2018년 거래형태별 실적에서는 ‘일반형태수출’이 5,320억 달러 (88.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7.7%)’, ‘국내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1.7%)’,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0.8%)’ 순으로 수출실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표 2-3〉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형태별 집계유형

코드값		수출거래종류
1	11	일반형태 수출
2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3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4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5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6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7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8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9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10	49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11	51	현물차관수출
12	59	현물상환수출
13	61	해외투자 수출
14	69	산업설비
15	71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16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
17	90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18	91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시설재,장비등의 물품의 수출
19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20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21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22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수출입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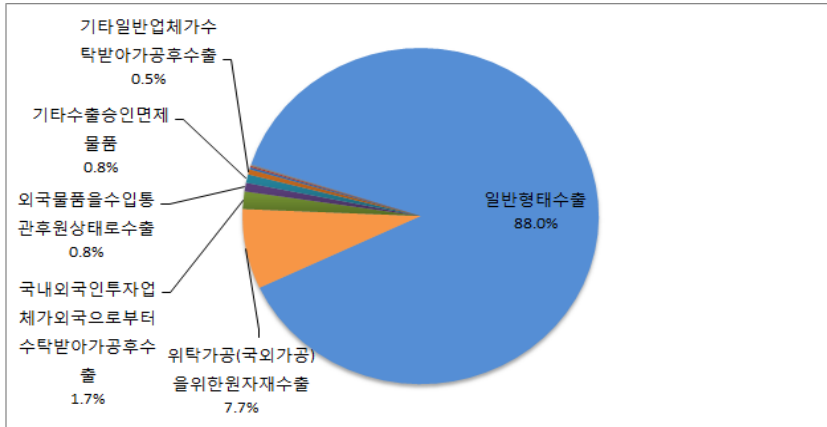
〈표 2-4〉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형태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1	일반형태수출	445,194	513,302	532,027	88.0
2	위탁가공(국외가공)을위한원자재수출	27,815	36,483	46,638	7.7
3	국내외국인투자업체가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가공후수출	10,361	10,128	10,197	1.7
4	외국물품을수입통관후원상태로수출	1,910	3,715	5,069	0.8
5	기타수출승인면제물품	4,567	4,600	4,901	0.8
6	기타일반업체가수탁받아가공후수출	3,293	3,015	3,029	0.5
7	위탁판매를위한물품의수출	635	798	1,285	0.2
8	무상으로반출하는상품의견품및광고용품	595	710	833	0.1
9	수입된물품이계약내용과상이하여 반출하는물품	408	410	293	0.0
10	수출된물품이계약조건과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또는용도변경등의부득 이한사유로인한대체품또는수출된물 품의누락이나부족품에대한보충물품	338	266	264	0.0
11	전자상거래에의한수출	129	103	135	0.0
12	해외투자수출	101	69	93	0.0
13	대외원조수출(정부원조)	32	28	61	0.0
14	대외원조수출(민간원조)	4	5	10	0.0
15	해외이주법에의한해외이주자가반출 하는원자재,시설재및장비등의물품의 수출(해외이주자물품)	2	8	8	0.0
16	수출물품의성능보장기간내에당해물품 의수리또는검사를위하여반출하는물품	15	28	7	0.0
17	산업설비	12	0	4	0.0
18	임대방식에의한수출(소유권이전조건)	8	23	4	0.0
19	현물상환수출	0	2	1	0.0
계		495,426	573,694	604,8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분석

〈그림 2-2〉 우리나라 수출의 거래형태별 실적(20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분석

3) 결제형태별 집계기준

세 번째는 수출의 대금결제 유형에 따라 총 11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에 대해 별도로 실적이 집계되고 있는 점에서 부가가치액을 산정하는데 자료의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의 실적은 약 52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8.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형태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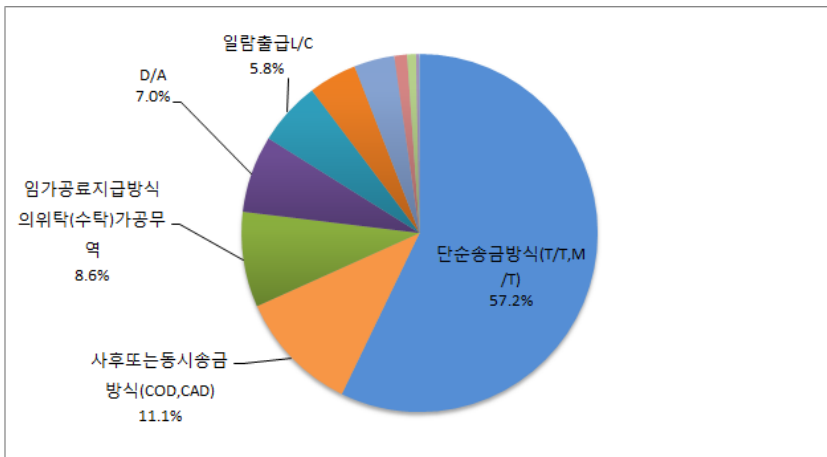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1 단순송금방식(T/T,M/T)	283,243	334,885	345,812	57.2
2 사후또는동시송금방식(COD,CAD)	49,009	60,430	67,204	11.1
3 임가공료지급방식의위탁(수탁)가공무역	34,592	42,733	52,151	8.6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4	D/A	41,746	41,750	42,261	7.0
5	일람출급L/C	31,217	33,946	35,097	5.8
6	기타유상	27,031	27,949	26,417	4.4
7	기한부L/C	15,590	18,628	22,150	3.7
8	기타무상	6,459	6,552	6,975	1.2
9	D/P	5,062	4,972	4,858	0.8
10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1,356	1,662	1,684	0.3
11	분할영수(지급)방식	121	189	250	0.0
계		495,426	573,696	604,8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수출입 분류 기준)

〈그림 2-3〉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형태별 실적(2018년)



2. 수입 무역 구조

1) 거래종류별 집계기준

우리나라 수입실적은 수출에 비해 ‘거래종류’별로 좀 더 세분화된 유형으로 집계하고 있다(〈표2-6〉). 총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

적이 집계되고 있는데 수출과 동일하게 ‘일반수입’과 ‘특수종류수입’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수입’의 경우 내수용과 외화획득용의 2가지 유형으로 수출보다는 세분화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종류수입’에 있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등 수입지를 구분된 유형이 집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세분화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2-7〉의 실적을 보면 2018년 총수입액은 약 5,352억 달러로 거래종류별로 ‘일반수입(내수용)’이 3,378억 달러(63.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일반수입(외화획득용, 25.0%)’, ‘보세공장수입(수출자유지역수입, 7.9%)’,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원재료(2.4%)’ 순으로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표 2-6〉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종류별 집계유형

코드값		수입거래종류
1	A	일반수입(외화획득용)
2	B	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3	D	외국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원재료)
4	F	해외진출기업 제작물품 수입(외화획득용)
5	G	보세건설장반입물품 수리전사용승인 물품
6	I	해외진출기업 제작물품 수입(내수용)
7	J	보세건설장반입물품 수리전사용승인물품(분할신고)
8	K	일반수입(내수용)
9	L	수리전반출승인수입(외화획득용)
10	M	수리전반출승인수입(내수용)
11	N	면세품 판매장 수입(반입)
12	P	우편물품(국제우체국 면허분)
13	Q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14	U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코드값		수입거래종류
15	X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에서 잉여품수입-외화획득용
16	Y	외국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시설재)

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수출입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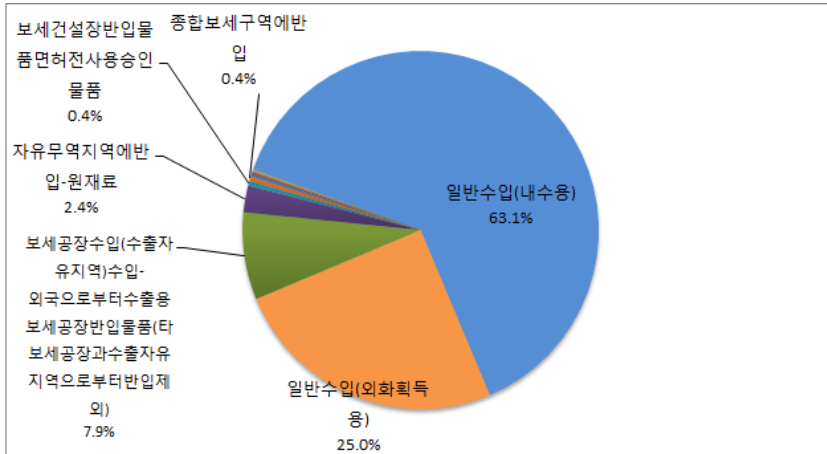
〈표 2-7〉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종류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1	일반수입(내수용)	258,973	304,063	337,822	63.1
2	일반수입(외화획득용)	89,579	110,252	133,859	25.0
3	보세공장수입(수출자유지역)수입-외국으로부터수출용보세공장반입물품(타보세공장과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반입제외)	43,423	42,868	42,349	7.9
4	자유무역지역에반입-원재료	6,573	8,861	12,917	2.4
5	보세건설장반입물품면허전사용승인물품	1,483	3,959	2,346	0.4
6	종합보세구역에반입	2,692	1,971	2,299	0.4
7	보세건설장에서수입신고(분할신고)	1,454	4,626	1,480	0.3
8	면허전반출승인수입(내수용)	873	629	901	0.2
9	보세공장수입(수출자유지역)수입-내수용보세공장반입물품	694	835	811	0.2
10	제주내국인면세점-면세품판매장수입	153	155	159	0.0
11	자유무역지역에반입-기계,기구,장비등시설재	142	70	137	0.0
12	우편물품(국제우체국면허분)	124	120	113	0.0
13	면허전반출승인수입(외화획득용)	25	64	4	0.0
14	해외진출기업에서제작된물품의수입(내수용)	4	3	4	0.0
15	해외진출기업에서제작된물품의수입(외화획득용)	1	1	1	0.0
계		406,193	478,477	535,20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2-4〉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종류별 실적(20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거래형태별 집계기준

‘거래형태’의 수입유형에는 총 26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집계되지만 5~6개의 유형은 연간 극히 소액의 실적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는 20개 내외의 유형으로 실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거래형태별 수입에서는 ‘일반형태수입’이 4,833억 달러(90.3%)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3.7%)’, ‘기타수입승인면제물품(1.8%)’, ‘수탁가공(국내가공)을 위한 수입-국내외국인업체(1.7%)’ 순으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표 2-8〉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형태별 집계유형

코드값		수출거래종류
1	11	일반형태 수입
2	12	주문자 상표 부착에 의한 수입물품(OEM방식)

코드값		수출거래종류
3	13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의 수입
4	14	계획조선용 원자재의 수입
5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
6	21	국내외국인투자업체 수탁가공수출 위한 원자재수입
7	22	기타일반업체 수탁가공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8	29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
9	31	공공차관 수입
10	39	기타차관 수입
11	41	국내투자 수입
12	49	수출자유지역 입주
13	51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
14	52	연계(구상)무역 수출을 위한 물품의 수입
15	53	소유권이전 조건
16	59	미군납품자재, 국내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할 물품구입
17	61	상계원재료
18	71	SOFA 특례수입
19	80	기타 외국환거래 수반없는 물품수입
20	87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21	89	수출물품 크레임등의 사유로 반입
22	91	이사화물수입
23	92	수출계약이행필요물품의 수입등거래원할위한물품
24	93	대체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누락,부족품보충위한 반입물품
25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26	96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수출입 분류 기준)

〈표 2-9〉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형태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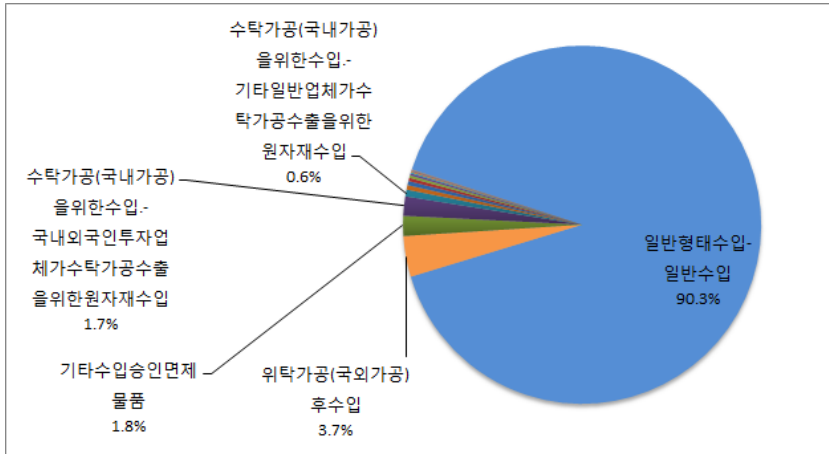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1	일반형태수입-일반수입	362,123	432,672	483,333	90.3
2	위탁가공(국외가공)후수입	13,714	16,036	19,737	3.7
3	기타수입승인면제물품	6,083	7,610	9,634	1.8
4	수탁가공(국내가공)을위한수입.- 국내외국인투자업체가수탁가공수 출을위한원자재수입	10,282	9,092	9,314	1.7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5	수탁가공(국내가공)을위한수입.- 기타일반업체가수탁가공수출을위 한원자재수입	3,308	3,128	3,263	0.6
6	임차방식에의한수입-소유권이전 조건부수입	2,625	1,443	2,187	0.4
7	우리나라에서수출되었던물품을크 레임등의사유로반입하는경우	2,120	2,279	1,973	0.4
8	전자상거래에의한수입물품	915	1,236	1,588	0.3
9	수출계약이행에필요한물품의수입 등무역거래원활을위한물품	1,808	1,640	1,212	0.2
10	수입된물품이나수출된물품이계약 조건과상이하거나,하자보증이행 또는용도변경등의부득이한사유로 대체를위하여반입하는물품또는수 입된물품의누락이나부족품에대하 여보충을위하여반입하는물품	1,218	1,138	976	0.2
11	무상으로반입하는상품의견품및광 고용품	546	573	575	0.1
12	방위산업용시설재및원자재의수입	437	354	438	0.1
13	주문자상표부착에의한수입물품 (OEM방식)	253	247	311	0.1
14	기타외국환거래가수반되지아니하 는물품의수입	304	553	257	0.0
15	국내투자수입.-국내투자	176	213	133	0.0
16	수탁판매를위한물품의수입	108	76	93	0.0
17	내국인이미군등에납품할자재또는국 내에서외화를받고판매할물품의구입	95	115	68	0.0
18	이사화물수입	61	57	55	0.0
19	국내투자수입.-자유무역지역입주	5	7	46	0.0
20	SOFA특례법제9조에의거,세관장 의양수도승인을받은물품의수입	3	3	3	0.0
21	여행자또는승무원휴대품수입	4	4	3	0.0
22	계획조선용원자재의수입	0	1	2	0.0
계		406,193	478,478	535,20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2-5〉 우리나라 수입의 거래형태별 실적(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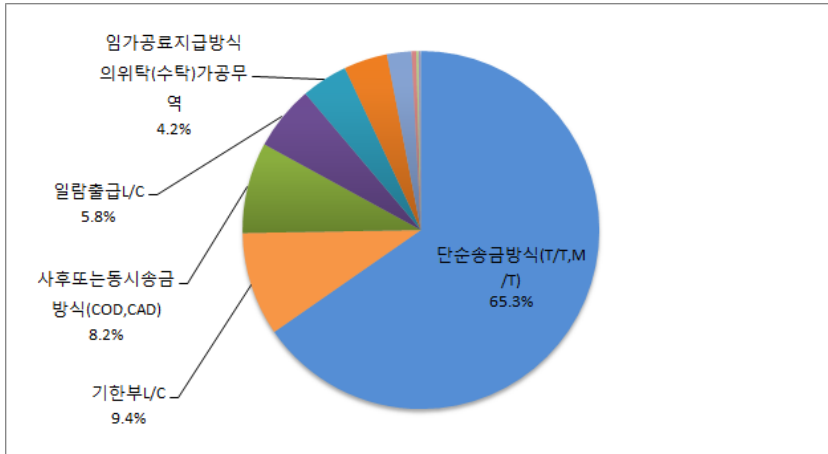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결제형태별 집계기준

수입의 대금결제 유형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총 11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에 대해 별도로 실적이 집계되고 있는 점에서 부가가치액을 산정하는데 자료의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2018년 기준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의 실적은 약 22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4.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우리나라 수입의 결제형태별 실적(20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2-10〉 우리나라 수입의 결제형태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18)
1 단순송금방식(T/T, M/T)	249,801	309,720	349,686	65.3
2 기한부L/C	45,524	46,927	50,257	9.4
3 사후또는동시송금방식(COD, CAD)	33,425	38,962	44,131	8.2
4 일람출급L/C	26,623	28,682	31,244	5.8
5 임가공료지급방식의위탁(수탁)가공무역	16,085	18,486	22,450	4.2
6 기타무상	20,671	20,840	21,080	3.9
7 D/A	9,993	11,280	11,849	2.2
8 D/P	1,965	1,877	2,250	0.4
9 기타유상	1,249	912	1,150	0.2
10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557	689	868	0.2
11 분할영수(지급)방식	299	103	236	0.0
계	406,192	478,478	535,20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제2절 우리나라 가공 무역 구조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구조분석에서 수출 및 수입 각각의 거래종류와 거래형태의 특성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무역을 일반 무역과 가공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공무역은 일반무역과 달리 원재료 또는 중간재를 조달하여 이를 재가공한 후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의 거래종류별 구분에서 생산지가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인 경우 이 대상지역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모두 가공무역수출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출의 ‘거래형태’별 구분에서 ‘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도 그 활동 내역상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⁴⁾ 이러한 가공무역은 그 성격상 모두 부가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가공 무역 정의⁵⁾

가공무역(improvement trade)은 가공을 목적으로 원료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또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가공수출국에게는 노임, 운임, 창고료 및 보험료 등이 외화가득액의 수입이 발생한다. 가공무역은 일반 수출입 거래와 다른 특정거래형태의 무역형태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거래형태를 ‘일반거래’형

4) 자료 :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지식경제부, 2012)」 저자 정리

5) 자료 :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지식경제부, 2012)」 저자 정리

태와 ‘특정거래’형태로 구분하는데 가공무역이 이러한 ‘특정거래’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다. 가공무역은 크게 보세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보세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Bonded Process Transaction : BPT)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보세지역에 원재료, 중간재의 가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중간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보세가공무역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에 원자재를 외국으로 부터 들여올 때 유환이나 무환으로 들여올 수도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당사자와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된다는 점에서 수탁가공무역과는 구별된다.

보세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입 종류별 기준에서 크게 4가지인 ‘보세공장에서부터수출’,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수출’, ‘관세자유지역으로부터수출’,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수출’을 실적으로 간주한다⁶⁾. 다만, 보세가공수출실적에서 ‘수탁가공실적’과 ‘위탁가공실적’은 제외한 것이 실질적인 보세가공무역으로 간주한다.

2)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은 제품을 가공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원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거래의

6) 보세가공무역의 경우 현 통계기준(거래종류별)상 수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집계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아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된 물품을 재인도하는 거래를 말한다⁷⁾.

이러한 수탁가공무역의 형태는 주로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무역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산업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의 무역형태로 자국의 모회사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지만, 일부 가공대상국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산업국에서도 이러한 수탁가공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거래형태별 기준에서 ‘21’, ‘22’번으로 수출입이 집계된다⁸⁾. 참고로 수탁가공무역은 국내에서 제품의 가공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순수 국내 부가가치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공무역의 형태라 할 수 있다.

3) 위탁가공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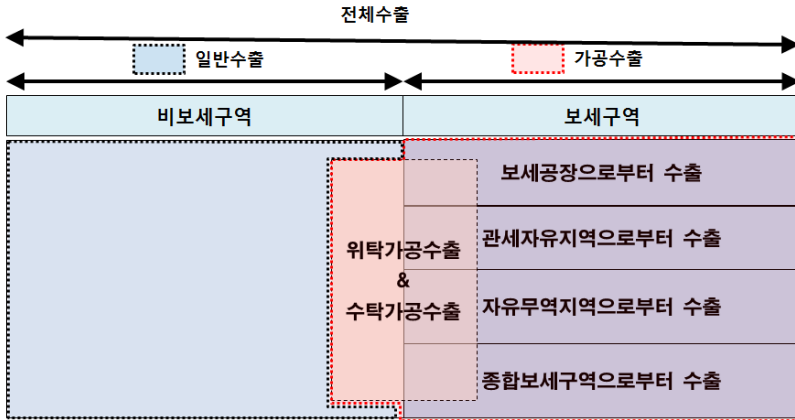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은 앞서 설명한 수탁가공무역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업체 입장에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원재료나 중간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공임이 비

7)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수출입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간주함.

8) ‘21’ 번은 국내 외국인투자업체를 말하며, ‘22’는 기타국내업체를 말함.

교적 저렴한 국가에서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 형태이다⁹⁾.

〈그림 2-7〉 우리나라 일반수출 vs 가공수출 개념도



참고로,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금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뺀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다. 위탁가공의 경우 거래형태별 기준에서 '29'번으로 수출입 실적이 집계된다¹⁰⁾. 이러한 위탁가공무역은 제품의 가공작업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부가가치활동과는 무관한 가공형태의 무역으로 볼 수 있다.

9) 실무적으로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의 차이는 물품의 수출입계약인자, 가공임을 지급하는 위탁가공계약인자로 판별함. 중계무역의 경우 반드시 한 개의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 영수해야 하며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금액에서 수입대금 지급액을 뺀 가득액만을 인정하며 대금을 지급, 영수한 은행에 신청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음.

10) 관세청 「손에 잡히는 수출통관 A to Z, 2016」

2. 우리나라 가공 무역 실적 및 추이

1) 가공무역 수출 현황

국내 가공무역수출 실적은 '18년 기준 약 2,111억 달러에 이른다 (<표2-11>). 지난 10년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17~'18년 들어 그간 정체된 가공무역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큰 증가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34.9~36.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08~'09)에도 실적 감소 없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전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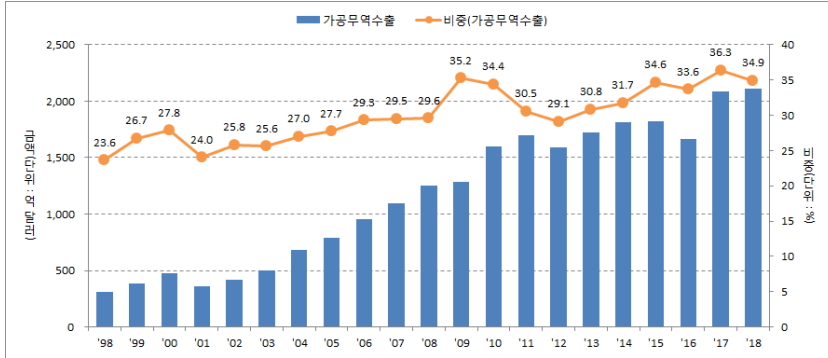
<표 2-11> 우리나라 가공무역수출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가공무역 (수출)	전체수출	가공무역비중	상대비 ('98기준)	연평균 (10년)
'08	124,826	422,007	29.6	3.99	14.9
'09	128,106	363,534	35.2	4.10	12.8
'10	160,215	466,384	34.4	5.13	12.8
'11	169,601	555,214	30.5	5.43	16.7
'12	159,435	547,870	29.1	5.10	14.3
'13	172,542	559,632	30.8	5.52	13.3
'14	181,672	572,665	31.7	5.81	10.2
'15	182,484	526,757	34.6	5.84	8.8
'16	166,699	495,426	33.6	5.34	5.7
'17	208,470	573,694	36.3	6.67	6.6
'18	211,092	604,860	34.9	6.76	5.4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2-8〉 우리나라 가공무역수출 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운송수단별로는 '18년 기준 전체 가공수출액의 71.7%가 항공으로 운송되었으며 항만은 28.3%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12〉).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 '13년까지 항만운송비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항만운송비중과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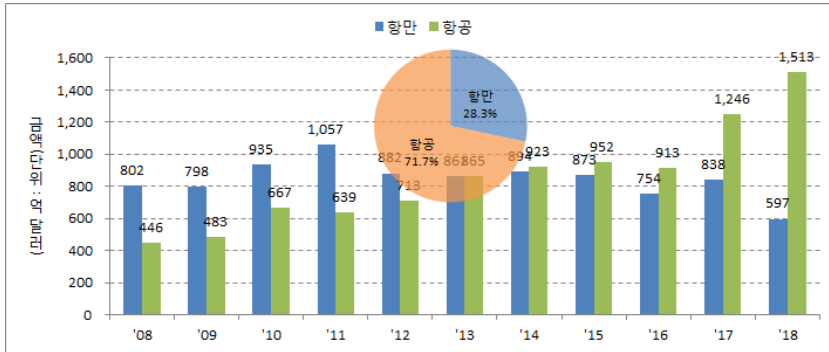
〈표 2-12〉 가공무역수출 운송수단별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실적		비중	
	항만	항공	항만	항공
'08	80,215	44,611	64.3	35.7
'09	79,809	48,297	62.3	37.7
'10	93,489	66,726	58.4	41.6
'11	105,741	63,860	62.3	37.7
'12	88,183	71,252	55.3	44.7
'13	86,076	86,466	49.9	50.1
'14	89,364	92,308	49.2	50.8
'15	87,257	95,227	47.8	52.2
'16	75,406	91,293	45.2	54.8
'17	83,847	124,623	40.2	59.8
'18	59,746	151,346	28.3	71.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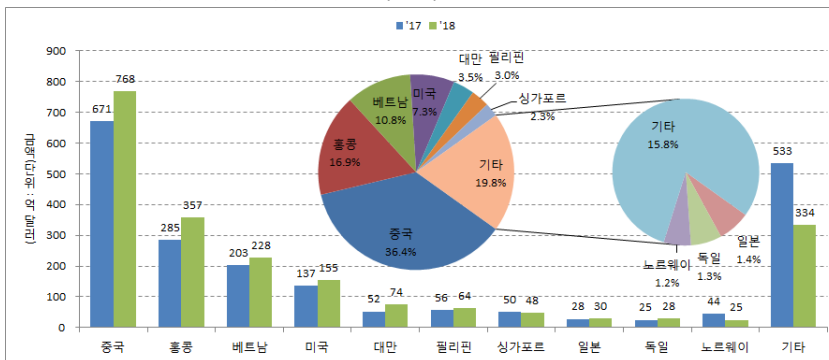
〈그림 2-9〉 가공무역수출 운송수단별 실적 및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2-13〉 가공무역수출의 대상국가별 수출비중에 있어서는 '18년 기준 중국이 전체비중의 약 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홍콩 16.9%, 베트남 10.8%, 미국 7.3% 순으로 가공무역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역국가중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이는 국가에는 23개가 있으며 상위 10대 국가의 비중이 전체의 가공무역수출의 약 8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0〉 가공무역(수출) 교역국가별 실적 및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2-13〉 가공무역수출 교역국가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6	'17	'18	비중 ('18)	운송비중('18)	
						항만	항공
1	중국	55,164	67,120	76,824	36.4	25.2	74.8
2	홍콩	22,399	28,533	35,692	16.9	4.1	95.9
3	베트남	12,232	20,263	22,824	10.8	26.8	73.2
4	미국	12,610	13,709	15,468	7.3	12.2	87.8
5	대만	4,275	5,203	7,426	3.5	7.3	92.7
6	필리핀	3,300	5,578	6,363	3.0	7.2	92.8
7	싱가포르	6,036	5,024	4,759	2.3	35.9	64.1
8	일본	2,919	2,810	2,990	1.4	45.0	55.0
9	독일	1,386	2,522	2,850	1.4	25.6	74.4
10	노르웨이	3,324	4,381	2,499	1.2	99.8	0.2
11	기타	43,054	53,324	33,401	15.8		
계		166,699	208,467	211,09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2-14〉 가공무역수출의 주요 품목은 '18년 기준 'H8542(전자집적회로)'가 전체 수출액의 약 49.8%로 거의 절반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H8901(선박류)' 7.1%, 'H8473(기계/전기기기류)' 5.5% 등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의 가공수출의 약 83.2%를 차지하여 가공무역수출은 특정품목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H8901(선박류)', 'H8905(특수선박류)'의 경우에는 국내 조선경기 불황으로 수주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적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도 보이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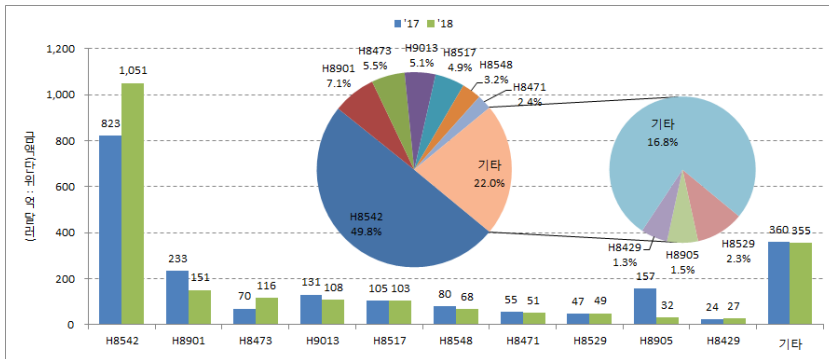
〈표 2-14〉 가공무역(수출) 품목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6	'17	'18	비중 ('18)	비중('18)	
						항공	항만
1	H8542	49,460	82,312	105,075	49.8	99.6	0.4
2	H8901	24,492	23,308	15,067	7.1	0.0	100.0
3	H8473	3,634	7,013	11,648	5.5	95.5	4.5
4	H9013	15,013	13,068	10,800	5.1	15.5	84.5
5	H8517	19,544	10,461	10,290	4.9	85.8	14.2
6	H8548	15	8,002	6,752	3.2	69.6	30.4
7	H8471	3,813	5,536	5,106	2.4	99.7	0.3
8	H8529	2,204	4,694	4,906	2.3	53.2	46.8
9	H8905	7,674	15,650	3,174	1.5	0.0	100.0
10	H8429	1,823	2,381	2,734	1.3	0.0	100.0
	기타	39,005	36,033	35,517	16.8		
계		166,677	208,458	211,06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2-11〉 가공무역수출 품목별 실적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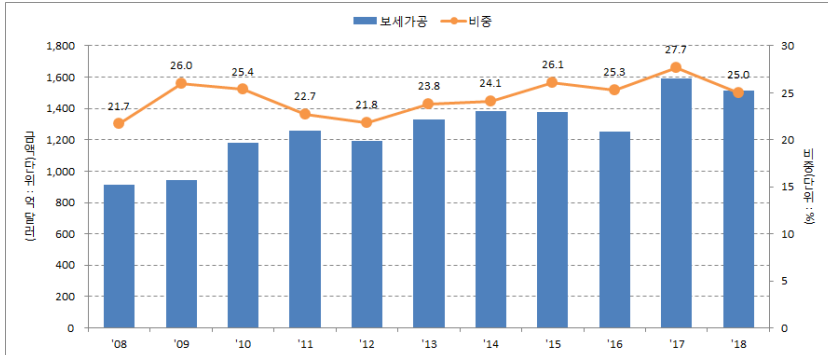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보세가공 수출 현황

우리나라 보세가공수출은 '18년 현재 약 1,51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08~'18) 연평균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다(〈표2-15〉). 그러나, 기간별로 보면 '08~'13년간은 7.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최근 5년간('13~'18)의 실적으로 보면 2.6% 수준으로 보세가공수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액 증가율을 고려하면 보세가공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세가공수출의 증가 측면에서는 수출을 위한 국내의 부가가치활동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2〉 우리나라 보세가공수출 실적 및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2-15〉 우리나라 보세가공수출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보세가공	전체수출	비중
'08	91,500	422,007	21.7
'09	94,492	363,534	26.0
'10	118,240	466,384	25.4
'11	125,940	555,214	22.7
'12	119,493	547,870	21.8
'13	133,179	559,632	23.8
'14	138,046	572,665	24.1
'15	137,556	526,757	26.1
'16	125,229	495,426	25.3
'17	158,844	573,694	27.7
'18	151,228	604,860	25.0
연평균 증가율	'08~'18	5.2	3.7
	'08~'13	7.8	5.8
	'13~'18	2.6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수탁가공 수출 현황

우리나라 수탁가공수출은 '18년 현재 약 13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2.2%로 비교적 작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10년간('08~'18)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다(〈표 2-16〉). 기간별로 보면 '08~'13년간은 다소 높은 4.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최근 5년간('13~'18)은 1.8% 수준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내 수탁가공 경쟁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인건비 상승 등 제반 비용의 경쟁력이 경쟁국인 개발도상국에 비해 열악해진 것도 주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15년 이후부터 실적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탁가공실적 감소는 그만큼 국내에서의 부가가치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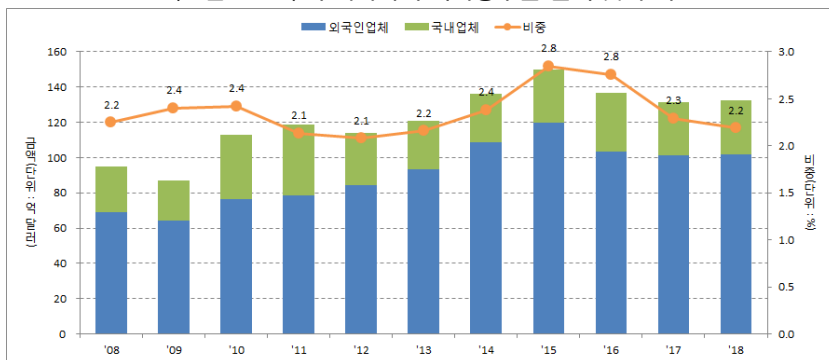
〈표 2-16〉 우리나라 수탁가공수출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탁가공			전체수출	비중
	외국인업체	국내업체	계		
'08	6,898	2,588	9,486	422,007	2.2
'09	6,437	2,286	8,723	363,534	2.4
'10	7,655	3,632	11,287	466,384	2.4
'11	7,865	3,996	11,861	555,214	2.1
'12	8,411	2,974	11,385	547,870	2.1
'13	9,320	2,757	12,077	559,632	2.2
'14	10,861	2,780	13,641	572,665	2.4
'15	12,003	2,979	14,982	526,757	2.8
'16	10,361	3,293	13,654	495,426	2.8
'17	10,128	3,015	13,143	573,694	2.3
'18	10,196	3,029	13,225	604,860	2.2
연평균 증가율	'08~'18	4.0	1.6	3.4	
	'08~'13	6.2	1.3	4.9	
	'13~'18	1.8	1.9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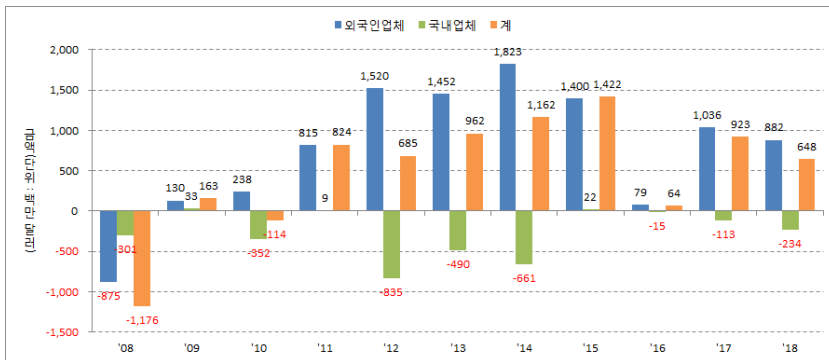
〈그림 2-13〉 우리나라 수탁가공수출 실적 및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수탁가공의 경우 가공전 제품의 수입금액과 가공후 제품의 수출금액의 차이로 수탁가공에 의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액을 산출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금액을 산출해보면, '18년 기준 수탁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6.5억 달러로 지난해 9.2억 달러에 비해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¹¹⁾.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액은 금융위기인 '08~'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5년을 14.2억 달러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14〉 우리나라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위탁가공 수출입 현황

위탁가공실적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의 2가지 측면에서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가공을 위해 중간재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국외에서 가공을 한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11) 물론 수탁가공에 대한 가공 전후의 제품가격차이만으로 부가가치창출액을 창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적인 증감을 가능해 보는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경우를 말한다. 위탁가공은 가공활동인 부가가치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위탁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작업 즉 부가가치활동 작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가공활동을 의뢰하는 것으로 '18년 기준 약 466억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의 증가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5년간 연평균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 증가에 비해 국내 가공활동(부가가치활동)이 그만큼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한편, 위탁가공수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2.8%(13~1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전 5년간 4.9%(08~13)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탁가공수입의 증가는 수입품에 대한 중간재의 가공활동(부가가치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내 부가가치활동의 국외 유출로도 볼 수 있다¹³⁾.

12)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2018년까지는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 들어서는 5월 현재 전년대비 -30.4%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 전자직접회로의 위탁가공수출이 많은 편으로 반도체 메모리 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13)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다소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2016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최근 국내 인건비 인상 등의 여파로 2017~2018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2019년 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전년대비 19.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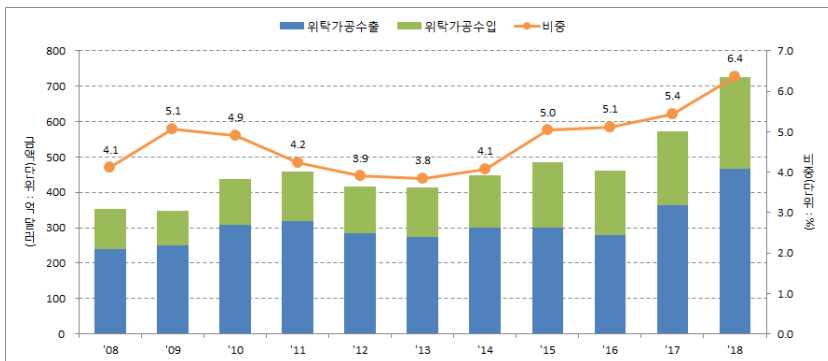
〈표 2-17〉 우리나라 위탁가공 수출 및 수입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위탁가공			전체수출입	비중
	위탁가공수출	위탁가공수입	계		
'08	23,840	8,510	32,350	857,282	3.8
'09	24,891	7,187	32,078	686,618	4.7
'10	30,689	9,119	39,808	891,596	4.5
'11	31,800	10,142	41,942	1,079,627	3.9
'12	28,557	9,754	38,311	1,067,454	3.6
'13	27,286	10,787	38,073	1,075,218	3.5
'14	29,985	11,524	41,509	1,098,179	3.8
'15	29,946	13,614	43,560	963,255	4.5
'16	27,816	13,713	41,529	901,619	4.6
'17	36,483	16,036	52,519	1,052,173	5.0
'18	46,638	19,737	66,375	1,140,062	5.8
연평균 증가율	'08~'18	6.9	8.8	7.5	2.9
	'08~'13	2.7	4.9	3.3	4.6
	'13~'18	11.3	12.8	11.8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2-15〉 우리나라 위탁가공 수출입 실적 및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제 3 장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정보 자료를 토대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은 크게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공무역의 경우 부가가치활동의 대표하는 무역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항만을 이용하여 원재료, 중간재의 반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항만과의 연관성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무역 수출입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절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정의

1. 부가가치의 개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의 개념은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¹⁴⁾. 이는 서비스나 재화의

최종 가치와 이러한 서비스나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외부 서비스나 재화간의 비용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들면, A기업이 a기업의 b서비스나 c재화를 사용하여 최종 B 서비스나 C재화를 생산한 경우 A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B+C)가치에서 (b+c)가치를 차감한 값이 된다. 즉, 해당 기업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가치와 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외부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를 제외한 것이 A기업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최종 산출물에 대한 가치에서 중간에 사용된 외부가치를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의 뿐만아니라 해당 기업의 인건비도 부가가치 산정 규모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분석한 가공무역에 대해 수입과 수출액의 차액을 산정하면 부가가치활동의 최종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항만배후지 및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배후지(背後地)’는 ‘도시나 항구의 경제적 세력권에 들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응용하면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항만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리적인 주변권역을 항만배후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상호간의 밀접한 활동 관계가 있다면 항만배후지는 거리의 인접 성과는 크게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만배후지

14) 『두산백과』, (검색일 : 2019.06.25.)

15) 『두산백과』, (검색일 : 2019.06.25.)

는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근접하여 조성된 복합산업단지(distripark)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배후의 광범위한 권역(hinterland)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배후지의 개념을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또는 화물)이 입지한 지역을 항만의 배후지 권역으로 정의한다. 다시말해, 항만이 입지한 지리적 위치에 기준하여 근거리의 주변 지역을 의미하기 보다는 해당항만을 이용한다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배후지의 개념을 정의한다. 따라서, 항만의 인근에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 뿐만아니라 다소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도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배후지 권역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반대로 항만에 인접하여 조성된 항만배후단지라도 해당 항만의 이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의 배후지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항만배후지 개념과 가공무역을 접목하여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정의하면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의 항만이용 수출실적”을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가공무역을 통해 수출된 화물 자체는 최종적으로 부가가치가 반영된 실적으로 이러한 실적 자체에 부가가치활동 내역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항만의 부가가치 활동력을 직·간접적으로 가늠해보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의 항만배후지 정의에 가공무역을 접목하면 항만배후지는 해당 항만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상당부분의 가공무역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짐

16) 항만배후지를 항만이 입지한 행정구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그 배후권역 지정에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매우 모호함. 예를 들어 부산항의 배후지를 부산시 행정구역으로만 볼 수 없고, 인천항 및 광양항 등 대부분의 항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작된다. 이는 가공무역 자체가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만과 원거리에 입지하는 것보다 항만에 인접한 지역에 대부분 사업장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항만배후지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항만배후지는 항만이 입지한 지역의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대부분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지나친 외곡현상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산정 방법

앞서 정의한 항만배후지 개념과 우리나라 가공무역 실적을 토대로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실적 형태인 수탁가공, 위탁가공, 보세가공 실적이 활용될 수 있다.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수탁가공무역은 그 성격상 부가가치활동을 가장 대표하는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 이전의 원재료, 중간재 등에 대한 수입액 실적이 있으며 또한 이를 가공하여 최종 수출한 수출액 실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활동의 최종결과물로 부가가치활동액을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산정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탁가공 실적의 규모가 보세가공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취급품목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제품가격만으로만 잠재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보세가공무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활동의 최종결과물인 수출액이 존재하지만 그 이전의 수입액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가공무역과 같은 부가가치액을 산정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종결과물에 대한 실적이 있고 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실적으로 볼 수 있다.

3) 위탁가공 실적 기준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위탁가공수출과 위탁가공수입으로 구분되며 부가가치활동(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산정하는데 활용성이 다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가공무역 또한,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국내에 환원되거나 추가유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활동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잠재적 실적으로 간주해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직접적인 실적은 아니지만 미래의 부가가치 잠재력으로 실적을 분석해 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종합적 판단 기준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앞서 설정한 수탁가공수출, 보세가공수출, 위탁가공수출, 위탁가공수입의 4가지 측면에서 각각 산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은 수탁가공수출과 보세가공수출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실적의 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보

다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수탁가공수출과 보세 가공수출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들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 국내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제2절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

1.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수탁가공 실적에 기준한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18년 약 27.3억 달러 규모로 지난 8년간('10~'18)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3-1〉). 성장비로 보면 '10년에 비해 약 2.03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기업유형별로는 외국인투자기업 14.7%, 국내기업 6.6%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에 못지않게 국내기업의 성장세도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4.9%, 중견기업 8.3%, 중소기업 12.8%로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알 수 있다.

17) '08~'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임을 감안하여 '10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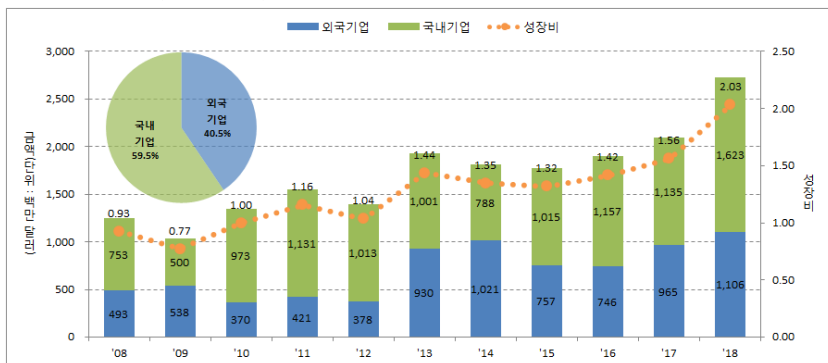
〈표 3-1〉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08	493	753	1,246	40	665	541	1,246
'09	538	500	1,038	78	540	420	1,038
'10	370	973	1,343	545	224	574	1,343
'11	421	1,131	1,552	538	213	801	1,552
'12	378	1,013	1,391	376	452	563	1,391
'13	930	1,001	1,931	494	543	894	1,931
'14	1,021	788	1,809	312	499	998	1,809
'15	757	1,015	1,772	391	582	799	1,772
'16	746	1,157	1,903	358	658	887	1,903
'17	965	1,135	2,100	690	272	1,138	2,100
'18	1,106	1,623	2,729	799	424	1,506	2,729
증가율 ('10~'18)	14.7	6.6	9.3	4.9	8.3	12.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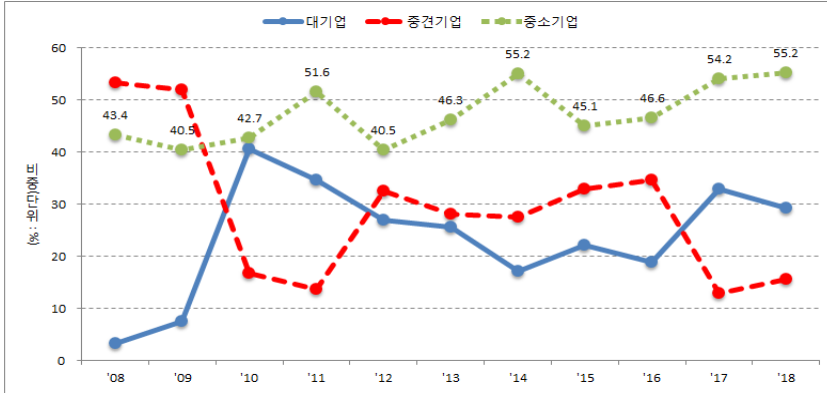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비중추이(기업규모별)



한편 기업규모별 시장점유율은 '18년 대기업 29.3%, 중견기업 15.5%, 중소기업 55.2%로 수탁가공실적은 중소기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잠재력 시장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점유비중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그간의 실적변화를 볼 때 상호간에 시장점유비중이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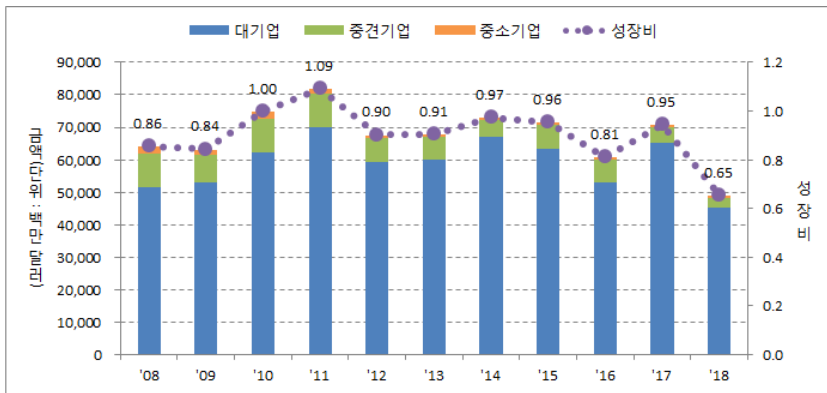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보세가공 실적에 기준한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18년 약 489.7억 달러 규모로 지난 8년간('10~'18) 연평균 -5.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크게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3-2〉). 성장비로 보면 '10년에 비해 약 0.65배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9%로 가장 감소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나 중견기업 -14.3%, 중소기업 -15.4%로 중견·중소기업의 감소세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보세가공 수출시장에

서 그간 중견·중소기업의 기반이 이전에 비해 크게 열악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 시장점유율은 '18년 대기업 92.7%, 중견기업 6.1%, 중소기업 1.2%로 보세가공실적 잠재력은 대기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절대적으로 주도해 왔으며 또한 그 점유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3〉 전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2〉 전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51,680	10,259	2,079	64,018	80.7	16.0	3.2
'09	53,034	8,455	1,598	63,087	84.1	13.4	2.5
'10	62,291	10,287	2,220	74,798	83.3	13.8	3.0
'11	70,145	10,201	1,454	81,800	85.8	12.5	1.8
'12	59,164	7,542	862	67,568	87.6	11.2	1.3
'13	59,956	7,224	592	67,772	88.5	10.7	0.9
'14	66,891	5,406	538	72,835	91.8	7.4	0.7
'15	63,552	7,372	528	71,452	88.9	10.3	0.7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6	52,847	7,346	583	60,776	87.0	12.1	1.0
'17	65,258	4,904	573	70,735	92.3	6.9	0.8
'18	45,404	2,982	582	48,968	92.7	6.1	1.2
증가율 ('10~'18)	-3.9	-14.3	-15.4	-5.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위탁가공 수출 실적 기준

위탁가공 수출실적에 기준한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18년 약 80.5억 달러 규모로 지난 8년간('10~'18)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3〉). 특히, 이러한 결과는 '18년 대내외 경기 여건악화로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장비로 보면 '10년에 비해 0.46배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1.1%로 가장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견기업은 9.5%로 증가세를 보인 것이 대조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1%로 다소 감소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탁가공 수출 실적악화는 대기업의 실적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 시장점유율은 '18년 대기업 19.4%, 중견기업 35.6%, 중소기업 45.0%로 위탁가공 수출은 '14년 이전까지는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이후 현재 중견·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18년에 와서는 대기업 실적 급감으로 중견·중소기업 완전주도 시장으로 전환된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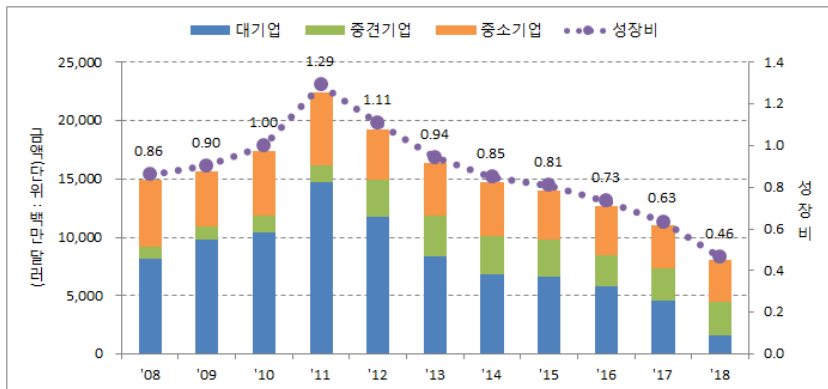
〈표 3-3〉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8,156	1,054	5,742	14,952	54.5	7.0	38.4
'09	9,765	1,168	4,749	15,682	62.3	7.4	30.3
'10	10,447	1,388	5,513	17,348	60.2	8.0	31.8
'11	14,689	1,509	6,191	22,389	65.6	6.7	27.7
'12	11,776	3,130	4,318	19,224	61.3	16.3	22.5
'13	8,391	3,421	4,562	16,374	51.2	20.9	27.9
'14	6,865	3,222	4,634	14,721	46.6	21.9	31.5
'15	6,655	3,124	4,254	14,033	47.4	22.3	30.3
'16	5,778	2,676	4,273	12,727	45.4	21.0	33.6
'17	4,599	2,749	3,664	11,012	41.8	25.0	33.3
'18	1,564	2,862	3,621	8,047	19.4	35.6	45.0
증가율 ('10~'18)	-21.1	9.5	-5.1	-9.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4〉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분석

4) 위탁가공 수입 실적 기준

위탁가공 수입실적에 기준한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18년 약 25.8억 달러 규모로 지난 8년간('10~'18)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비로 보면 '10년에 비해 1.36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이 16.5%로 가장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 -3.8%, 중소기업 3.5%로 대기업은 감소하고 중견·중소기업은 실적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견·중소기업의 중심으로 국내 부가가치 활동이 지속적으로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 시장점유율은 '18년 대기업 17.5%로 비교적 점유율이 낮은 편이며, 중견기업 28.2%, 중소기업 54.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탁가공 수입실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도 '12년 이후부터 대기업의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측면도 나타난다.

〈표 3-4〉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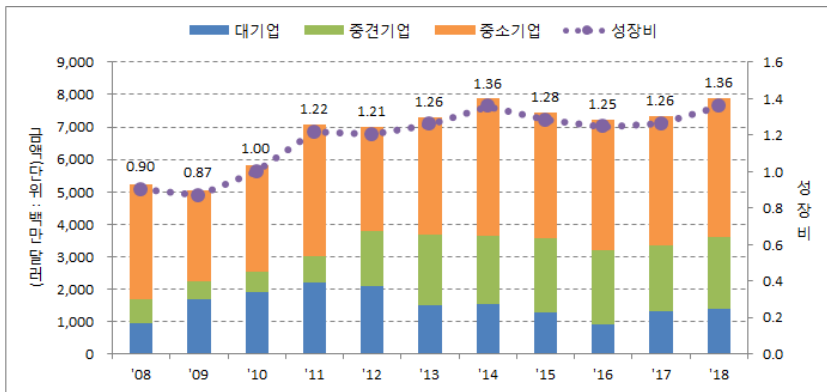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942	734	3,560	5,236	18.0	14.0	68.0
'09	1,667	580	2,786	5,033	33.1	11.5	55.4
'10	1,887	656	3,259	5,802	32.5	11.3	56.2
'11	2,217	781	4,062	7,060	31.4	11.1	57.5
'12	2,107	1,679	3,207	6,993	30.1	24.0	45.9
'13	1,492	2,194	3,623	7,309	20.4	30.0	49.6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4	1,531	2,096	4,248	7,875	19.4	26.6	53.9
'15	1,278	2,284	3,870	7,432	17.2	30.7	52.1
'16	901	2,284	4,042	7,227	12.5	31.6	55.9
'17	1,297	2,057	3,968	7,322	17.7	28.1	54.2
'18	1,383	2,222	4,283	7,888	17.5	28.2	54.3
증가율 ('10~'18)	-3.8	16.5	3.5	3.9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5〉 전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종합평가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전국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나뉠대로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 성장비 측면에서 보면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0 수준에서 '18년 현재 0.68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8년간('10~'18) 위탁가공과 보세가공 수출실적이 대내외 경

기 여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연평균 -4.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준년도인 '10년의 수탁 및 보세가공 수출실적은 761억 달러로 '11년 834억 달러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18년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18년 시장의 89.4%를 점유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감소폭이 연평균 -3.8%로 비교적 낮은 현상을 보이지만, 중견기업 부문에서 높은 감소세(-13.1%)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10년 시장점유율이 13.8%였으나, '18년에 와서는 -7.2%p나 하락한 6.6%로 낮아진 것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어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점유율은 낮으나 비교적 변화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90% 가량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이나 대기업의 성장은 대내외 영향에 따른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특히, '18년 국내 최저임금인상 등의 여파로 기업의 비용경쟁력이 다소 악화되면서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제고 노력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국 시도 기준에서 경상남도가 전체 실적의 29.7%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경기도)이 22.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항이 입지한 관계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측면에서도 단연 국내 1위 지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적은 '13년에 비해 '18년에 와서는 크게 낮아진 수치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항만이 위치한 인근지역과 연관성이 이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¹⁸⁾.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항만에 인접한 주변권역이 대표적인 항만배후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3-5〉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51,720	10,924	2,620	65,264	79.2	16.7	4.0
'09	53,112	8,995	2,018	64,125	82.8	14.0	3.1
'10	62,836	10,511	2,794	76,141	82.5	13.8	3.7
'11	70,683	10,414	2,255	83,352	84.8	12.5	2.7
'12	59,540	7,994	1,425	68,959	86.3	11.6	2.1
'13	60,450	7,767	1,486	69,703	86.7	11.1	2.1
'14	67,203	5,905	1,536	74,644	90.0	7.9	2.1
'15	63,943	7,954	1,327	73,224	87.3	10.9	1.8
'16	53,205	8,004	1,470	62,679	84.9	12.8	2.3
'17	65,948	5,176	1,711	72,835	90.5	7.1	2.3
'18	46,203	3,406	2,088	51,697	89.4	6.6	4.0
증가율 ('10~'18)	-3.8	-13.1	-3.6	-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18) '18년 경상남도의 실적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그간 경남에 위치한 주요 조선소의 영업실적 악화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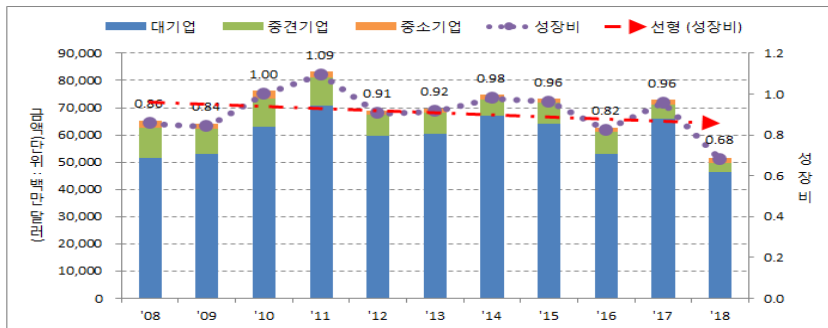
〈표 3-6〉 전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	경남	26,544	26,254	23,222	20,412	33,947	15,359
2	수도권	11,972	13,553	11,675	9,890	10,975	11,636
3	울산	13,341	16,239	18,813	15,051	11,941	7,425
4	충남	7,452	7,667	7,752	5,332	5,912	6,599
5	경북	4,910	5,396	5,758	4,311	3,585	3,356
6	전남	2,562	2,567	3,060	4,319	2,768	3,071
7	충북	648	642	620	1,089	1,634	1,974
8	기타	2,274	2,326	2,325	2,274	2,071	2,275
계		69,703	74,644	73,225	62,678	72,833	51,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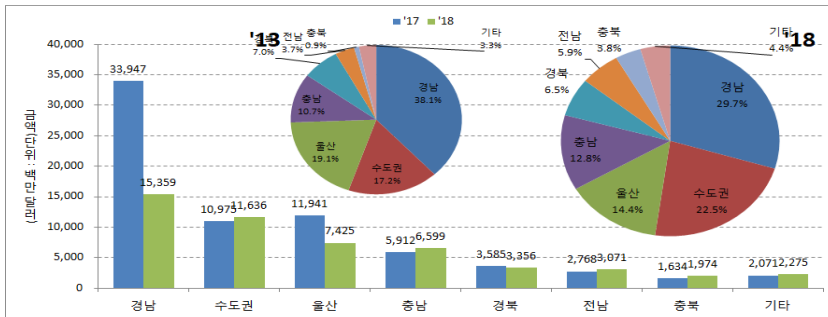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6〉 전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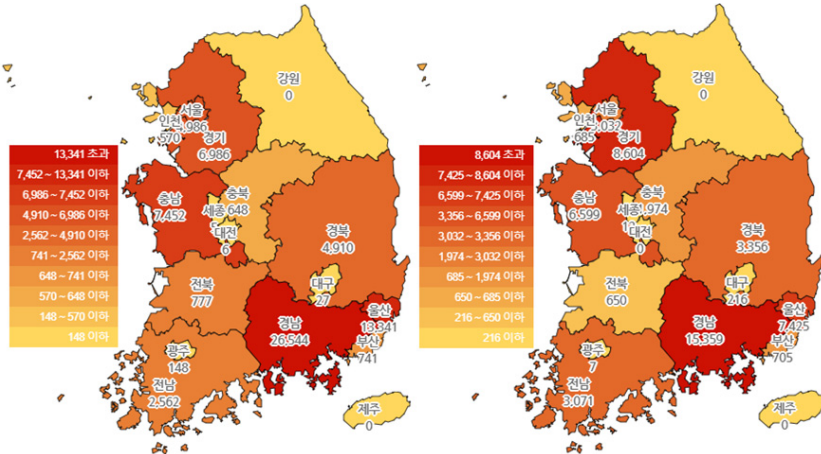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7〉 전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8〉 전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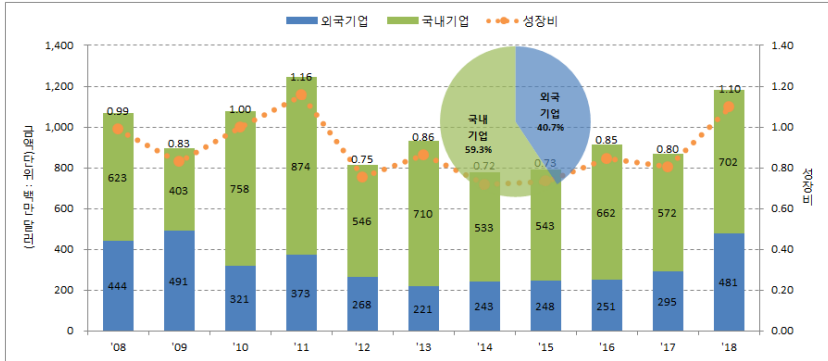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그림 3-9〉 부산항의 수탁가공 실적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1.10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유형별로는 외국인기업(5.2%)은 동기간 실적이 증가한데 비해 국내기업(-1.0%)은 실적이 감소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2%), 중견기업(-12.2%), 중소기업(6.0%) 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9〉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7〉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08	444	623	1,067	31	652	384	1,067
'09	491	403	894	69	536	289	894
'10	321	758	1,079	537	220	322	1,079
'11	373	874	1,247	506	212	529	1,247
'12	268	546	814	298	281	235	814
'13	221	710	931	467	263	201	931
'14	243	533	776	275	271	230	776
'15	248	543	791	262	239	290	791
'16	251	662	913	325	256	332	913
'17	295	572	867	452	58	357	867
'18	481	702	1,183	593	78	512	1,183
증가율 (10~18)	5.2	-1.0	1.2	1.2	-12.2	6.0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그림 3-10〉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59로 연평균 -6.3%의 높은 감소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5.7%), 중견기업(-8.3%), 중소기업(-6.6%) 으로 모든 기업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견·중소기업의 하락세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하락현상은 '16년부터는 다소 정체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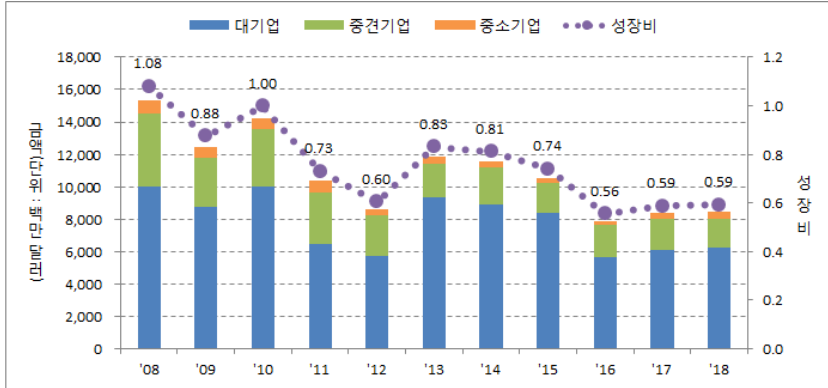
〈표 3-8〉 부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0,018	4,490	859	15,367	65.2	29.2	5.6
'09	8,743	3,029	705	12,477	70.1	24.3	5.7
'10	9,999	3,534	697	14,230	70.3	24.8	4.9
'11	6,461	3,175	755	10,391	62.2	30.6	7.3
'12	5,710	2,567	319	8,596	66.4	29.9	3.7
'13	9,327	2,095	416	11,838	78.8	17.7	3.5
'14	8,882	2,345	325	11,552	76.9	20.3	2.8
'15	8,365	1,893	273	10,531	79.4	18.0	2.6
'16	5,658	1,986	256	7,900	71.6	25.1	3.2
'17	6,133	1,850	370	8,353	73.4	22.1	4.4
'18	6,258	1,774	404	8,436	74.2	21.0	4.8
증가율 ('10~'18)	-5.7	-8.3	-6.6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0〉 부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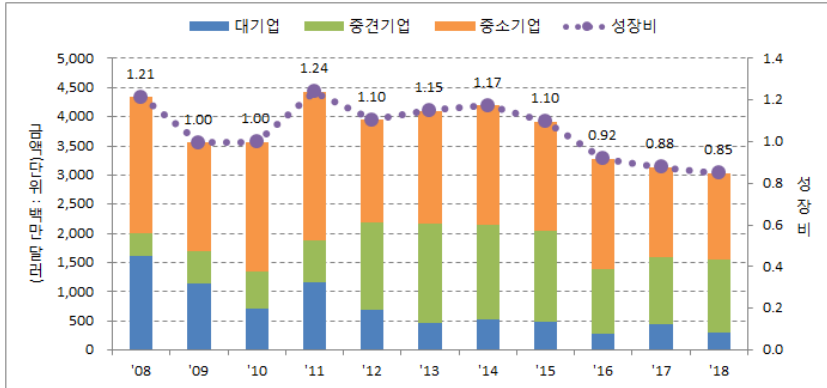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위탁가공 수출 실적 기준

〈그림 3-11〉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85로 연평균 -2.0%의 감소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0.0%), 중견기업(8.6%), 중소기업(-5.0%)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대기업(10.0%), 중견기업(41.5%), 중소기업(48.5%)로 중견·중소기업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10년 중견기업의 점유율은 18.2% 수준이었으나 '18년에 41.5%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항의 위탁가공 수출 시장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1〉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9〉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615	391	2,327	4,333	37.3	9.0	53.7
'09	1,140	552	1,860	3,552	32.1	15.5	52.4
'10	701	651	2,217	3,569	19.6	18.2	62.1
'11	1,155	725	2,545	4,425	26.1	16.4	57.5
'12	685	1,507	1,751	3,943	17.4	38.2	44.4
'13	456	1,710	1,938	4,104	11.1	41.7	47.2
'14	534	1,621	2,034	4,189	12.7	38.7	48.6
'15	485	1,565	1,860	3,910	12.4	40.0	47.6
'16	274	1,116	1,889	3,279	8.4	34.0	57.6
'17	433	1,168	1,533	3,134	13.8	37.3	48.9
'18	302	1,257	1,470	3,029	10.0	41.5	48.5
증가율 ('10~'18)	-10.0	8.6	-5.0	-2.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위탁가공 수입 실적 기준

〈그림 3-12〉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2.61로 연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3.7%), 중견기업(30.4%), 중소기업(12.2%) 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64.3%로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실적 감소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위탁가공 수입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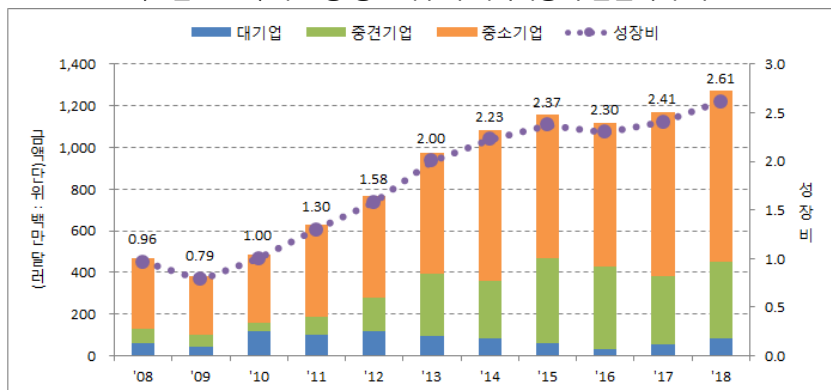
〈표 3-10〉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60	70	338	468	12.8	15.0	72.2
'09	46	53	285	384	12.0	13.8	74.2
'10	116	44	327	487	23.8	9.0	67.1
'11	100	89	443	632	15.8	14.1	70.1
'12	120	160	490	770	15.6	20.8	63.6
'13	97	294	585	976	9.9	30.1	59.9
'14	84	274	726	1,084	7.7	25.3	67.0
'15	59	407	690	1,156	5.1	35.2	59.7
'16	31	396	692	1,119	2.8	35.4	61.8
'17	54	329	789	1,172	4.6	28.1	67.3
'18	86	368	819	1,273	6.8	28.9	64.3
증가율 ('10~'18)	-3.7	30.4	12.2	12.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2〉 부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

국내 항만을 대표하는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외 수출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보세가공산업이 활발했던 과거와는 달리 부산항 배후지의 보세가공수출이 감소하면서 위탁가공 실적 역시 이전에 비해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3-13〉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63로 연평균 -5.6%의 큰 감소율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5.2%), 중견기업(-8.5%), 중소기업(-1.3%) 으로 모든 기업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하락현상은 '16년부터 다소 정체된 수준을 보이다 '18년까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증가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국 시도 기준에서 수도권(서울·경기도)이 전체 실적의 2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14.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이 입지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점유비중은 '13년 15.2% 수준이었으나 '18년에 와서는 21.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항만배후지가 항만과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화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실적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동기간 부산+경남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무튼 부산항의 경우 항만배후지가 인접지역인 부산+경남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산항이 부산+경남지역의 부가가치활동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그만큼 항만과 지역간의 상생발전 여건이 이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표 3-11〉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0,049	5,142	1,243	16,434	61.1	31.3	7.6
'09	8,812	3,565	994	13,371	65.9	26.7	7.4
'10	10,536	3,754	1,019	15,309	68.8	24.5	6.7
'11	6,967	3,387	1,284	11,638	59.9	29.1	11.0
'12	6,008	2,848	554	9,410	63.8	30.3	5.9
'13	9,794	2,358	617	12,769	76.7	18.5	4.8
'14	9,157	2,616	555	12,328	74.3	21.2	4.5
'15	8,627	2,132	563	11,322	76.2	18.8	5.0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6	5,983	2,242	588	8,813	67.9	25.4	6.7
'17	6,585	1,908	727	9,220	71.4	20.7	7.9
'18	6,851	1,852	916	9,619	71.2	19.3	9.5
증가율 (’10~’18)	-5.2	-8.5	-1.3	-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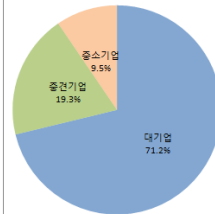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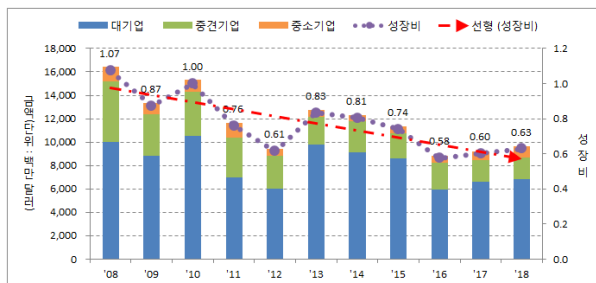
〈표 3-12〉 부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 수도권	3,752	4,732	4,091	2,562	2,844	2,834
2 경남	1,206	1,148	1,123	1,440	1,407	1,399
3 충북	363	383	365	680	1,107	1,277
4 충남	3,656	2,838	3,106	1,345	1,021	1,250
5 울산	1,503	1,449	1,176	1,171	994	718
6 부산	738	787	669	768	872	700
7 전북	148	165	154	174	236	495
8 기타	1,404	826	637	671	738	944
계	12,770	12,328	11,321	8,811	9,219	9,617
비중(전국)	15.2	15.7	15.8	25.1	24.7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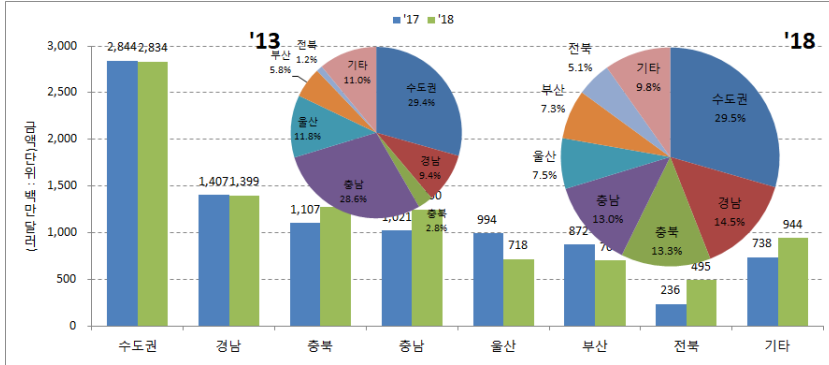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3〉 부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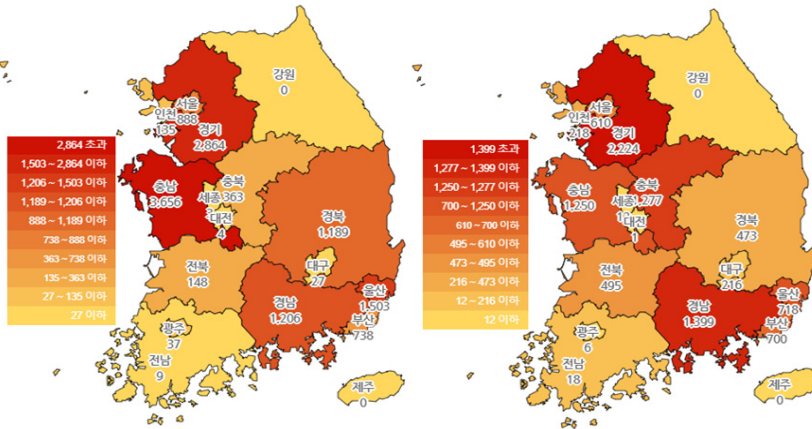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4〉 부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5〉 부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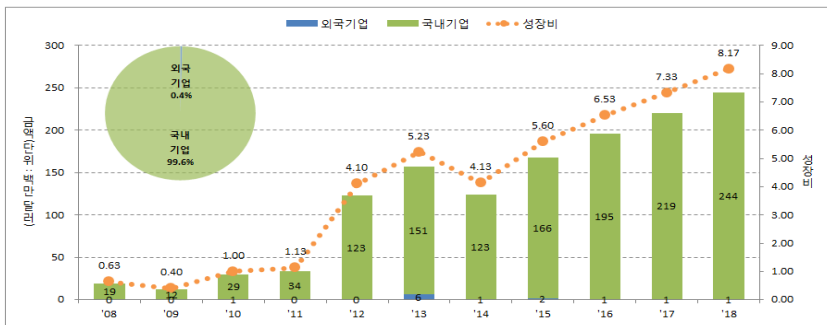
3.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인천항의 수탁가공 실적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8.17로 연평균 3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

림 3-16)). 기업유형별로는 인천항의 경우 외국인기업의 실적은 거의 전무하며 국내기업(30.5%)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92.8%), 중견기업(0.0%), 중소기업(6.8%) 으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3-16〉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13〉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08	0	19	19	4	7	8	19
'09	0	12	12	7	0	5	12
'10	1	29	30	1	0	29	30
'11	0	34	34	0	0	34	34
'12	0	123	123	12	101	10	123
'13	6	151	157	5	126	26	157
'14	1	123	124	0	107	17	124
'15	2	166	168	1	148	19	168
'16	1	195	196	13	168	15	196
'17	1	219	220	146	26	48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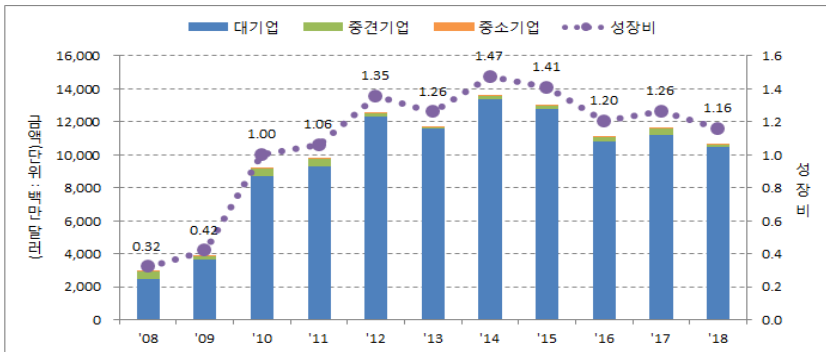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18	1	244	245	191	5	49	245
증가율 ('10~'18)	0.0	30.5	30.0	92.8	-	6.8	3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보면 '10년 1.00에서 '18년 1.16로 연평균 1.8%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7〉).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3%), 중견기업(-11.7%), 중소기업(-3.2%) 으로 대기업이 소폭 증가하고 있을 뿐 중견·중소기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7〉 인천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14〉 인천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2,466	441	48	2,955	83.5	14.9	1.6
'09	3,640	190	54	3,884	93.7	4.9	1.4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0	8,685	479	79	9,243	94.0	5.2	0.9
'11	9,288	442	54	9,784	94.9	4.5	0.6
'12	12,342	139	43	12,524	98.5	1.1	0.3
'13	11,562	72	22	11,656	99.2	0.6	0.2
'14	13,352	234	36	13,622	98.0	1.7	0.3
'15	12,752	248	15	13,015	98.0	1.9	0.1
'16	10,776	303	35	11,114	97.0	2.7	0.3
'17	11,226	399	51	11,676	96.1	3.4	0.4
'18	10,450	177	61	10,688	97.8	1.7	0.6
증가율 ('10~18)	2.3	-11.7	-3.2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위탁가공 수출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39로 연평균 -11.1%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8〉).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5.6%), 중견기업(8.8%), 중소기업(-5.2%)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대기업(14.9%), 중견기업(32.5%), 중소기업(52.6%)로 중견·중소기업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10년 중견·중소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6.5%, 25.7%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8년에 각각 32.5%, 52.6%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천항의 위탁가공 수출 시장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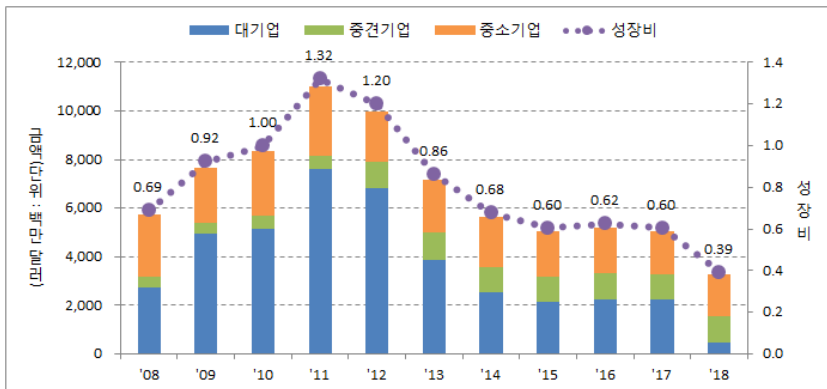
〈표 3-15〉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2,736	456	2,554	5,746	47.6	7.9	44.4
'09	4,951	457	2,277	7,685	64.4	5.9	29.6
'10	5,150	541	2,639	8,330	61.8	6.5	31.7
'11	7,618	549	2,830	10,997	69.3	5.0	25.7
'12	6,811	1,100	2,086	9,997	68.1	11.0	20.9
'13	3,851	1,174	2,160	7,185	53.6	16.3	30.1
'14	2,549	1,033	2,065	5,647	45.1	18.3	36.6
'15	2,161	1,024	1,852	5,037	42.9	20.3	36.8
'16	2,256	1,082	1,859	5,197	43.4	20.8	35.8
'17	2,235	1,023	1,772	5,030	44.4	20.3	35.2
'18	486	1,060	1,716	3,262	14.9	32.5	52.6
증가율 ('10~'18)	-25.6	8.8	-5.2	-11.1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18〉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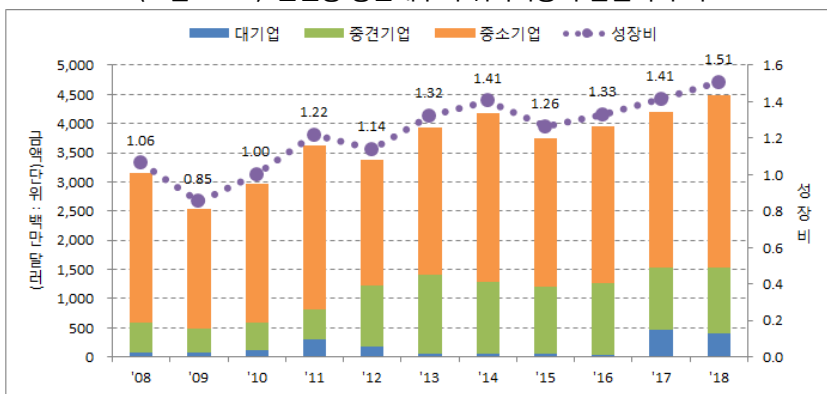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위탁가공 수입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1.51로 연평균 5.3%의 높은 증가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9〉).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6.3%), 중견기업(11.9%), 중소기업(2.6%)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낮은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65.8%로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위탁가공 수입 실적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9〉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16〉 인천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65	522	2,571	3,158	2.1	16.5	81.4
'09	82	396	2,061	2,539	3.2	15.6	81.2
'10	120	459	2,396	2,975	4.0	15.4	80.5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1	302	506	2,809	3,617	8.3	14.0	77.7
'12	176	1,050	2,159	3,385	5.2	31.0	63.8
'13	57	1,348	2,529	3,934	1.4	34.3	64.3
'14	42	1,243	2,895	4,180	1.0	29.7	69.3
'15	45	1,162	2,547	3,754	1.2	31.0	67.8
'16	38	1,222	2,697	3,957	1.0	30.9	68.2
'17	458	1,070	2,675	4,203	10.9	25.5	63.6
'18	402	1,132	2,948	4,482	9.0	25.3	65.8
증가율 ('10~'18)	16.3	11.9	2.6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

대중국 중추항만인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인천항 항만배후지의 보세가공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감소폭이 다소 낮고 여기에 수탁가공 실적의 호조가 다소 뒷받침 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4년 이후 보세가공수출이 상당부분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감소 경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0〉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1.18로 연평균 2.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6%), 중견기업(-11.4%), 중소기업(0.2%) 으로 대기업이 소폭 증가세를 보일 뿐 중견·중소기업의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항의 경우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대기업이 압도적인 비중(97.%)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국 시·도 기준에서 수도권(서울·경기도)이 전체 실적의 4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충청남도 23.6%, 경상북도가 17.4%로 인천항의 경우 3개 시·도가 90% 이상의 점유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산항의 경우 여러 시·도에 걸쳐 항만배후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인천항은 특정 시·도의 집중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3년의 경우 수도권에 이어 경상북도의 점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8년에 와서는 점유비중이 낮아졌으며 반면 인천항 인접 권역인 충청북도의 점유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천항의 항만배후지가 점진적으로 항만 인근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산항과 달리 인천항은 인천+수도권의 부가가치활동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며 그만큼 항만과 지역간의 상생발전 여건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3-17〉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2,470	448	56	2,974	83.1	15.1	1.9
'09	3,647	190	59	3,896	93.6	4.9	1.5
'10	8,686	479	108	9,273	93.7	5.2	1.2
'11	9,288	442	88	9,818	94.6	4.5	0.9
'12	12,354	240	53	12,647	97.7	1.9	0.4
'13	11,567	198	48	11,813	97.9	1.7	0.4
'14	13,352	341	53	13,746	97.1	2.5	0.4
'15	12,753	396	34	13,183	96.7	3.0	0.3
'16	10,789	471	50	11,310	95.4	4.2	0.4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7	11,372	425	99	11,896	95.6	3.6	0.8
'18	10,641	182	110	10,933	97.3	1.7	1.0
증가율 ('10~'18)	2.6	-11.4	0.2	2.1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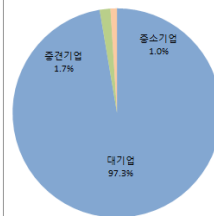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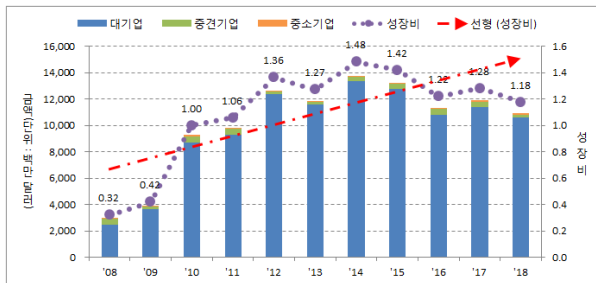
〈표 3-18〉 인천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 수도권	6,112	6,467	5,340	5,269	5,231	5,419
2 충남	2,121	2,932	2,871	2,382	3,552	2,583
3 경북	2,866	3,566	4,297	2,743	2,073	1,906
4 충북	256	233	252	398	448	460
5 인천	315	508	394	456	476	404
6 울산	14	12	15	51	106	147
7 경남	16	13	15	10	6	11
8 기타	110	12	0	0	3	2
계	11,810	13,743	13,184	11,309	11,895	10,932
비중(인천+수도권)	54.4	50.8	43.5	50.6	48.0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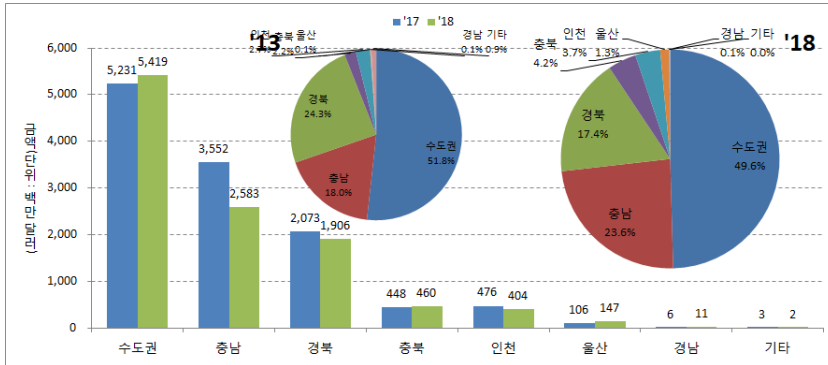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0〉 인천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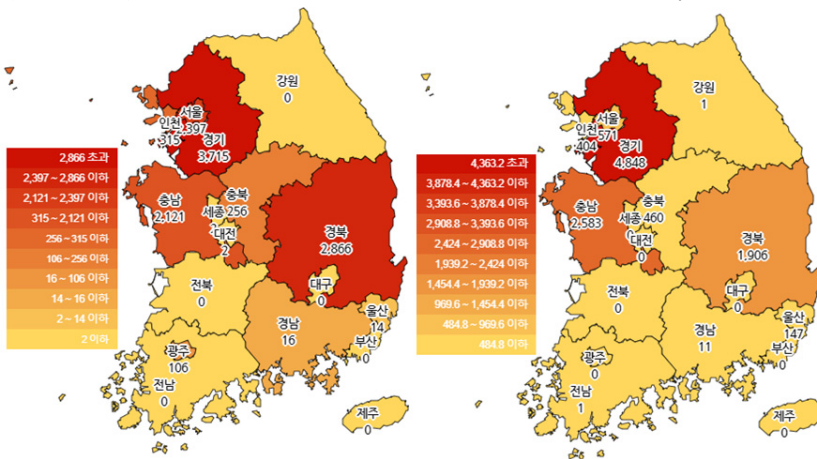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1〉 인천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2〉 인천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여수광양항의 수탁가공 실적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12.42로 연평균 3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3〉). 기업유형별로는 외국인기업(-11.5%)은 동기간 실적이 크게 감소한데 비해 국내기업(90.4%)은 실적이 증가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점유율은 중견·중소기업이 전체의 97.8%를 차지할 정도로 여수광양항은 수탁가공 부문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면, 대기업은 실적이 일부 있기는 하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항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실적면에서 거의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양쪽기업간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18년에 와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9〉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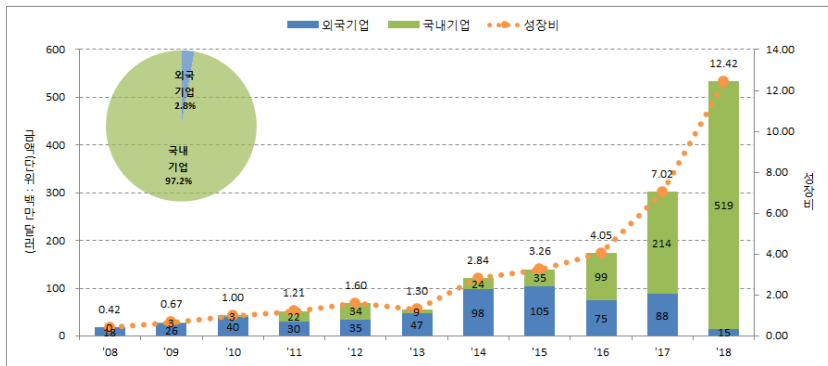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08	18	0	18	0	0	18	18
'09	26	3	29	0	1	28	29
'10	40	3	43	0	0	43	43
'11	30	22	52	0	1	51	52
'12	35	34	69	0	35	34	69
'13	47	9	56	3	47	6	56
'14	98	24	122	16	93	13	122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15	105	35	140	12	105	23	140
'16	75	99	174	0	77	97	174
'17	88	214	302	85	20	197	302
'18	15	519	534	12	261	261	534
증가율 ('10~'18)	-11.5	90.4	37.0	-	-	25.3	37.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3〉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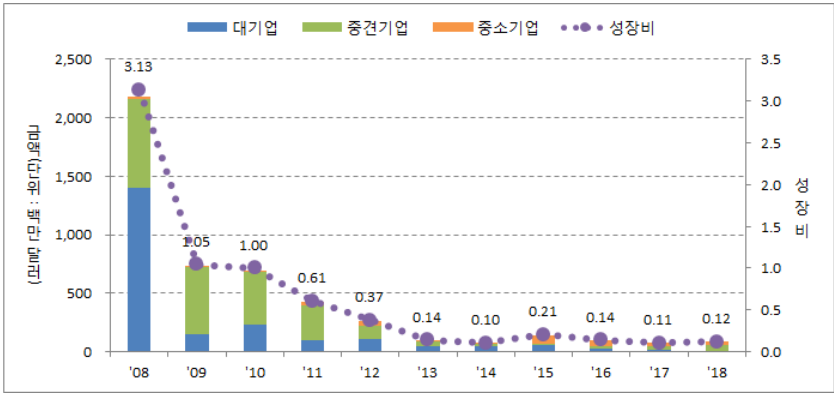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보면 '10년 1.00에서 '18년 0.12로 연평균 - 23.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4〉).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32.4%), 중견기업(-25.0%), 중소기업(6.4%) 으로 유일 하게 중소기업만이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보세가공 실적은 '10년 6.8억 달러정도의 소규모였으나 이마저도 '18년에 와서는 0.8억 달러 로 크게 축소되어 여수광양항은 국내 항만물동량 처리실적에 비해 보세가공 수출부문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는 항만이라 볼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보세가공 실적은 거의 전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여수광양항은 보세가공 측면에서 부산항, 인천항에 비해 대내외 경기 여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항만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4〉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20〉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396	763	25	2,184	63.9	34.9	1.1
'09	150	576	5	731	20.5	78.8	0.7
'10	229	451	17	697	32.9	64.7	2.4
'11	93	299	33	425	21.9	70.4	7.8
'12	113	111	37	261	43.3	42.5	14.2
'13	48	39	11	98	49.0	39.8	11.2
'14	50	20	2	72	69.4	27.8	2.8
'15	53	18	72	143	37.1	12.6	50.3
'16	28	20	52	100	28.0	20.0	52.0
'17	20	29	26	75	26.7	38.7	34.7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8	10	45	28	83	12.0	54.2	33.7
증가율 ('10~18)	-32.4	-25.0	6.4	-23.4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위탁가공 수출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2.84로 연평균 14.0%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5〉).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36.9%), 중견기업(-11.5%), 중소기업(5.6%)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의 감소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대기업(67.8%), 중견기업(4.4%), 중소기업(27.8%)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10년 중견-중소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28.7%, 51.0%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18년에 와서는 크게 비중이 축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3-21〉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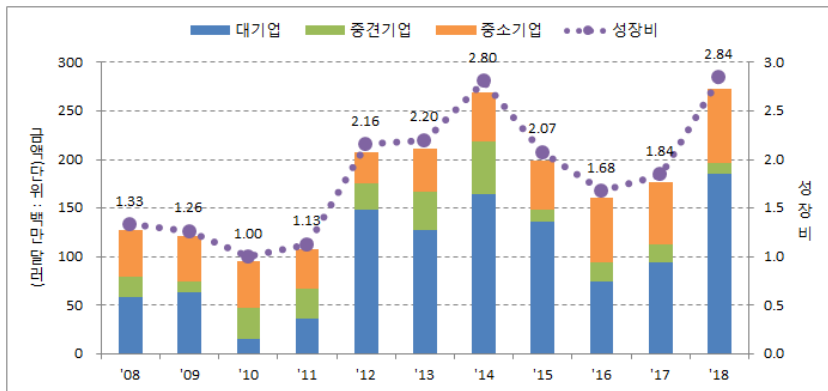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58	21	49	128	45.3	16.4	38.3
'09	64	11	46	121	52.9	9.1	38.0
'10	15	32	49	96	15.6	33.3	51.0
'11	36	31	41	108	33.3	28.7	38.0
'12	148	27	32	207	71.5	13.0	15.5
'13	128	39	44	211	60.7	18.5	20.9
'14	165	54	50	269	61.3	20.1	18.6
'15	136	13	50	199	68.3	6.5	25.1
'16	75	19	67	161	46.6	11.8	41.6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7	94	19	64	177	53.1	10.7	36.2
'18	185	12	76	273	67.8	4.4	27.8
증가율 ('10~'18)	36.9	-11.5	5.6	14.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5〉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위탁가공 수입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2.18로 연평균 10.2%의 높은 증가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전무하며 중견기업(-4.7%), 중소기업(21.7%) 으로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0년 이후 큰 성장세를 보여 점유율이 높아진 점을 다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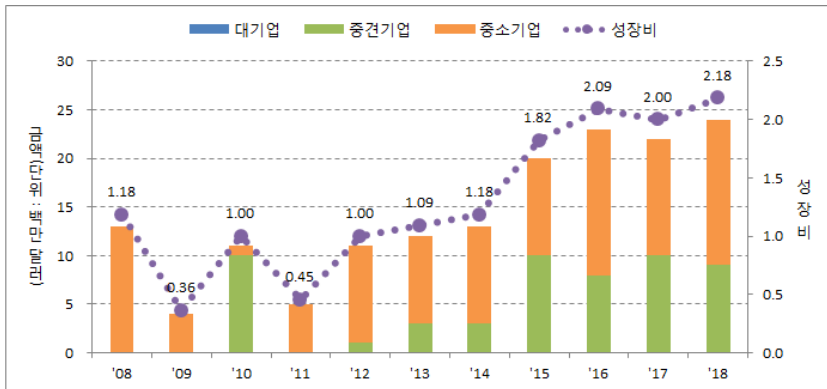
〈표 3-22〉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0	0	13	13	0.0	0.0	100.0
'09	0	0	4	4	0.0	0.0	100.0
'10	0	10	1	11	0.0	90.9	9.1
'11	0	0	5	5	0.0	0.0	100.0
'12	0	1	10	11	0.0	9.1	90.9
'13	0	3	9	12	0.0	25.0	75.0
'14	0	3	10	13	0.0	23.1	76.9
'15	0	10	10	20	0.0	50.0	50.0
'16	0	8	15	23	0.0	34.8	65.2
'17	0	10	12	22	0.0	45.5	54.5
'18	0	9	15	24	0.0	37.5	62.5
증가율 ('10~'18)	-	-1.3	40.3	10.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6〉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규모면에서 소규모 항만으로 잠재력은 정체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의 보세가공수출은 매우 소규모이며 이마저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다만, 수탁가공 수출의 호조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나름대로 정체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7〉 성장비 측면에서 보면 '10년 1.00에서 '18년 0.83로 연평균 -2.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준은 소규모라 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1.7%)의 성장세에 절대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높이기 과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관련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국 시도 기준에서 전라남도가 전체 실적의 8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적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항만배후지가 인근지역에 매우 높게 집중되어 있는 항만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다음으로는 전라북도가 12.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비중은 6.5%에 불과하여 이는 부산항, 인천항과는 달리 항만배후지가 항만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발달한 대표적인 항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근지역 집중도는 '13년에 4.6%에 불과하였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8년에 와서는 80.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수광양항의 경우에는 항만과 지역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항만으로 항만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생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3〉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396	763	43	2,202	63.4	34.7	2.0
'09	150	577	33	760	19.7	75.9	4.3
'10	229	451	60	740	30.9	60.9	8.1
'11	93	300	84	477	19.5	62.9	17.6
'12	113	146	71	330	34.2	44.2	21.5
'13	51	86	17	154	33.1	55.8	11.0
'14	66	113	15	194	34.0	58.2	7.7
'15	65	123	95	283	23.0	43.5	33.6
'16	28	97	149	274	10.2	35.4	54.4
'17	105	49	223	377	27.9	13.0	59.2
'18	22	306	289	617	3.6	49.6	46.8
증가율 ('10~'18)	-25.4	-4.7	21.7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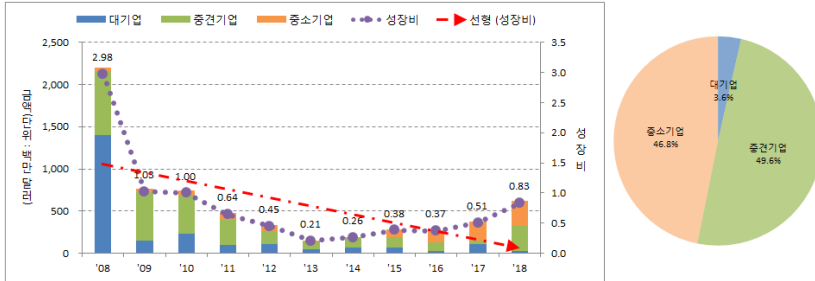
〈표 3-24〉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	전남	7	5	94	155	233	495
2	전북	64	128	124	77	111	75
3	수도권	14	2	1	5	15	21
4	인천	0	1	0	0	2	19
5	경남	26	7	9	11	11	7
6	기타	0	0	0	0	0	0
7	충북	0	0	0	0	0	0
8	기타	42	52	54	25	3	0
계		153	195	282	273	375	617
비중(전남)		4.6	2.6	33.3	56.8	62.1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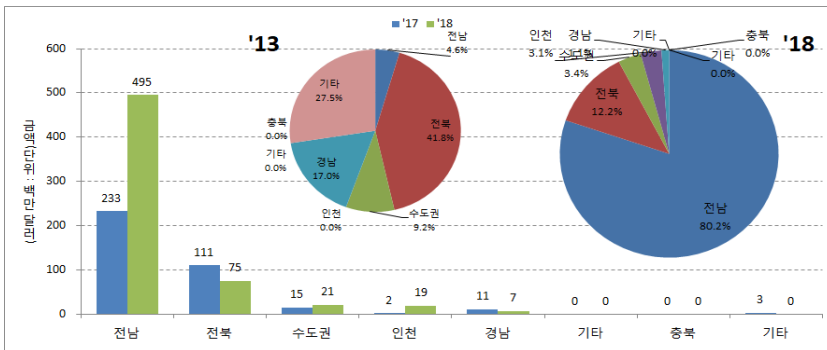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7〉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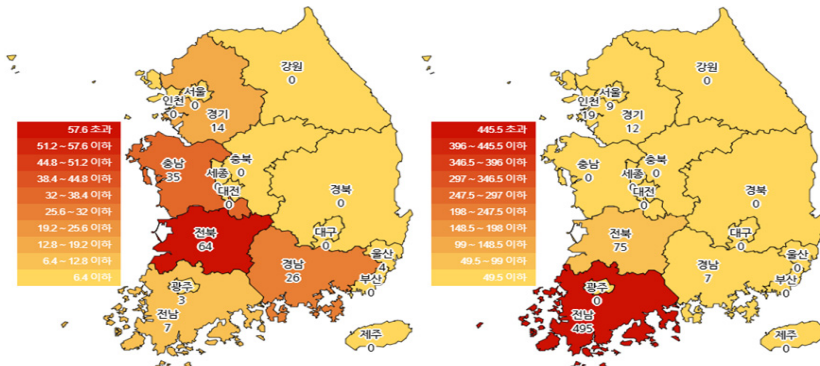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8〉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29〉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울산항의 수탁가공 실적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47.50로 연평균 6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30〉). 다만 실적은 1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업유형별로는 외국인기업의 실적은 없으며 국내기업의 실적이 그간 큰 변화폭을 가지며 있어온 상황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48.4%), 중소기업(51.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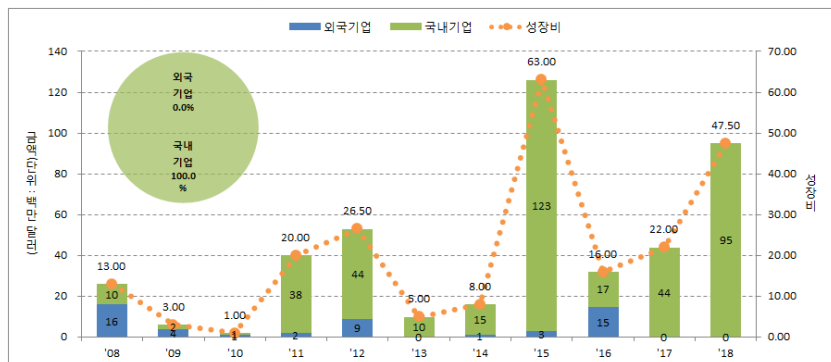
〈표 3-25〉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08	16	10	26	0	5	21	26
'09	4	2	6	0	2	4	6
'10	1	1	2	1	0	1	2
'11	2	38	40	30	0	10	40
'12	9	44	53	26	0	27	53
'13	0	10	10	7	0	3	10
'14	1	15	16	9	0	7	16
'15	3	123	126	89	0	37	126
'16	15	17	32	1	2	29	32
'17	0	44	44	2	0	42	44
'18	0	95	95	0	46	49	95
증가율 ('10~'18)	-100.0	76.7	62.0	-100.0	-	62.7	62.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0〉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보면 '10년 1.00에서 '18년 0.63로 연평균 -5.6%의 감소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31〉).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5.8%), 중견기업(0.2%), 중소기업(-8.9%)으로 중견기업만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을 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5년까지는 나름대로 실적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3-26〉 울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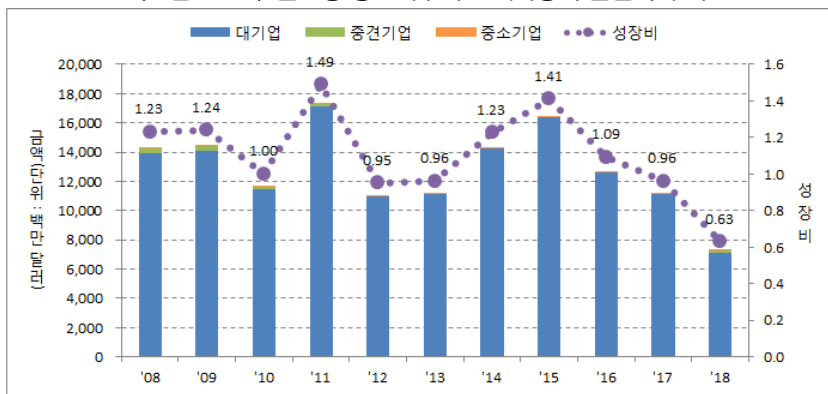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3,913	332	73	14,318	97.2	2.3	0.5
'09	14,117	259	70	14,446	97.7	1.8	0.5
'10	11,420	179	42	11,641	98.1	1.5	0.4
'11	17,148	162	29	17,339	98.9	0.9	0.2
'12	10,950	10	113	11,073	98.9	0.1	1.0
'13	11,158	8	37	11,203	99.6	0.1	0.3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4	14,261	7	24	14,292	99.8	0.0	0.2
'15	16,363	6	42	16,411	99.7	0.0	0.3
'16	12,592	19	95	12,706	99.1	0.1	0.7
'17	11,119	45	29	11,193	99.3	0.4	0.3
'18	7,109	182	20	7,311	97.2	2.5	0.3
증가율 ('10~'18)	-5.8	0.2	-8.9	-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1〉 울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위탁가공 수출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06로 사실상 울산항의 위탁가공 수출은 소멸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그림 3-32〉). 그나마 중견·중소기업이 이 부문에서 지난 10년간 일부 실적이 있었으나 '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18년 현재 연간 1백만 달러에도 못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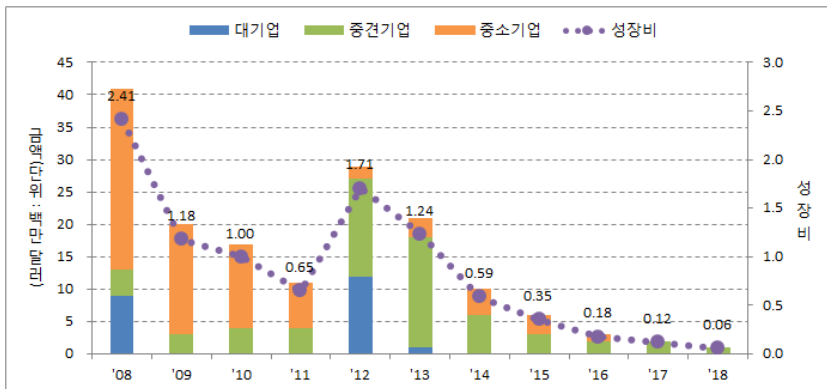
〈표 3-27〉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9	4	28	41	22.0	9.8	68.3
'09	0	3	17	20	0.0	15.0	85.0
'10	0	4	13	17	0.0	23.5	76.5
'11	0	4	7	11	0.0	36.4	63.6
'12	12	15	2	29	41.4	51.7	6.9
'13	1	17	3	21	4.8	81.0	14.3
'14	0	6	4	10	0.0	60.0	40.0
'15	0	3	3	6	0.0	50.0	50.0
'16	0	2	1	3	0.0	66.7	33.3
'17	0	2	0	2	0.0	100.0	0.0
'18	0	1	0	1	0.0	100.0	0.0
증가율 ('10~'18)	-	-15.9	-100.0	-29.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2〉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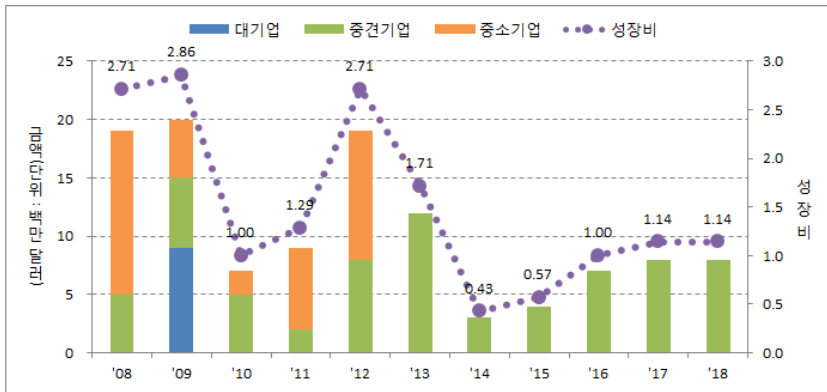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위탁가공 수입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1.14로 연평균 1.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림 3-33〉). 그러나 위탁가공 수출과 마찬가지로 위탁가공 수입 실적 역시 극히 실적이 작아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다만, 중견기업이 소규모이지만 매년 일정부분의 실적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맥을 유지해오고는 있다.

〈그림 3-33〉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28〉 울산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0	5	14	19	0.0	26.3	73.7
'09	9	6	5	20	45.0	30.0	25.0
'10	0	5	2	7	0.0	71.4	28.6
'11	0	2	7	9	0.0	22.2	77.8
'12	0	8	11	19	0.0	42.1	57.9
'13	0	12	0	12	0.0	100.0	0.0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4	0	3	0	3	0.0	100.0	0.0
'15	0	4	0	4	0.0	100.0	0.0
'16	0	7	0	7	0.0	100.0	0.0
'17	0	8	0	8	0.0	100.0	0.0
'18	0	8	0	8	0.0	100.0	0.0
증가율 ('10~18)	-	6.1	-100.0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적으로 보세수출 실적에 기반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3-34〉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64로 연평균 -5.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시장은 대부분 대기업에 거의 집중(96.0%)되어 있고 중견-중소기업은 거의 실적인 미미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17년까지는 다소 일정수준의 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18년에 와서 실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울산항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크게 하락한 형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국 시도 기준에서 울산광역시와 전체 실적의 88.3%로 거의 울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수도권(서울+경기) 9.6%, 경상남도 1.5%, 경상북도 0.6%로 사실상 울산항의 항만배후지는 울산광역시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수광양항과 같이 항만배후지가 항만과 상관관계 아주 높은 경우로 항만의 성장이 지역성장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13년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일부 실적이 '18년에 와서 일부 증가하여 울산항의 향만배후권역이 기존 울산광역시 내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수도권 일부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9.6%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9〉 울산항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13,913	337	94	14,344	97.0	2.3	0.7
'09	14,117	261	74	14,452	97.7	1.8	0.5
'10	11,421	179	43	11,643	98.1	1.5	0.4
'11	17,178	162	39	17,379	98.8	0.9	0.2
'12	10,976	10	140	11,126	98.7	0.1	1.3
'13	11,165	8	40	11,213	99.6	0.1	0.4
'14	14,270	7	31	14,308	99.7	0.0	0.2
'15	16,452	6	79	16,537	99.5	0.0	0.5
'16	12,593	21	124	12,738	98.9	0.2	1.0
'17	11,121	45	71	11,237	99.0	0.4	0.6
'18	7,109	228	69	7,406	96.0	3.1	0.9
증가율 ('10~'18)	-5.8	3.1	6.1	-5.5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30〉 울산항 향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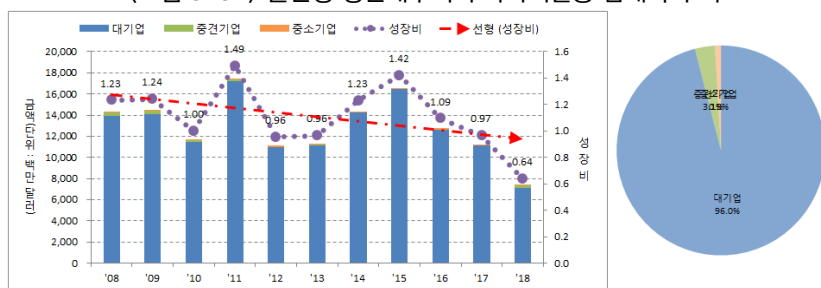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 울산	11,195	14,281	16,423	12,715	10,374	6,541
2 수도권	3	2	99	18	530	709
3 경남	9	17	5	0	327	109
4 경북	1	2	1	4	5	47

구분		'13	'14	'15	'16	'17	'18
5	기타	0	0	0	0	0	0
6	충북	0	0	0	0	0	0
7	충남	3	0	0	0	0	0
8	기타	0	5	9	1	1	0
계		11,211	14,307	16,537	12,738	11,237	7,406
비중(울산+경남)		99.9	99.9	99.3	99.8	95.2	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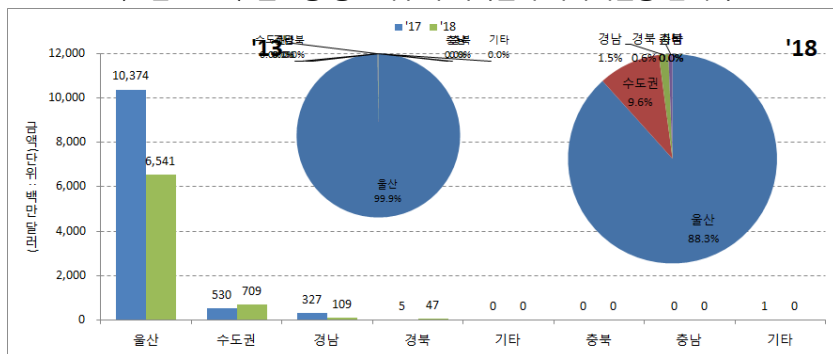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4〉 울산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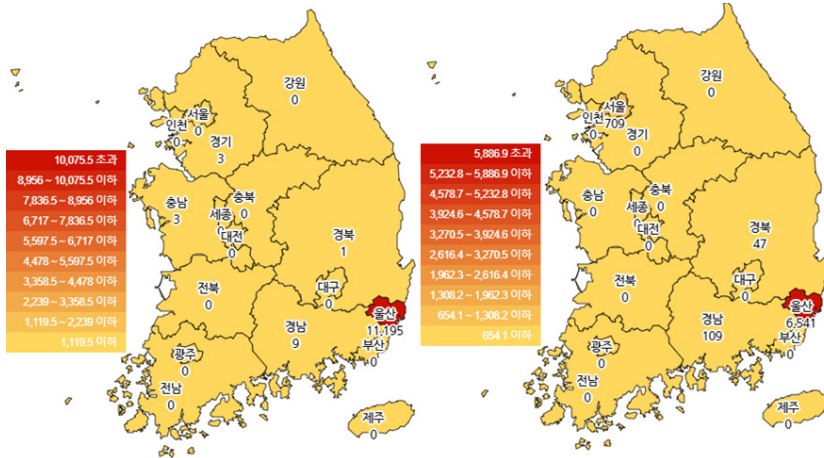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5〉 울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6〉 울산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 수탁가공 실적 기준

평택·당진항의 수탁가공 실적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11 수준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37〉). '12년과 '14년 2차례에 걸쳐 1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실적이 크게 급변하는 현상을 그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외국인기업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2~'13년을 기점으로 상호 전환되는 현상이 있으며, 중견·중소기업간에도 이러한 전환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시장 규모는 일정부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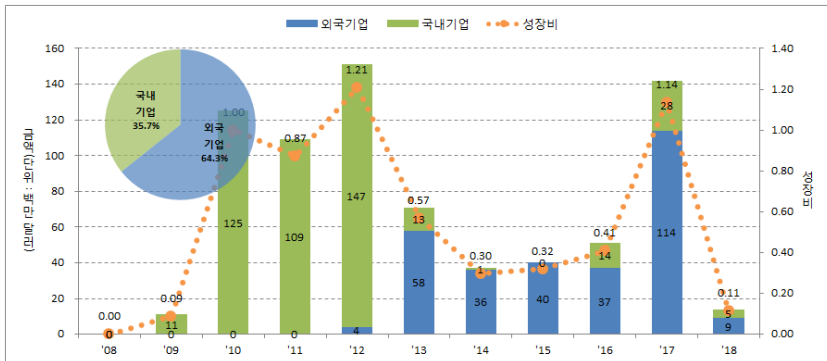
〈표 3-3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유형			기업규모			
	외국인	국내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08	0	0	0	0	0	0	0
'09	0	11	11	0	0	11	11
'10	0	125	125	6	0	119	125
'11	0	109	109	0	0	109	109
'12	4	147	151	25	0	126	151
'13	58	13	71	5	62	4	71
'14	36	1	37	0	27	10	37
'15	40	0	40	0	34	6	40
'16	37	14	51	0	47	4	51
'17	114	28	142	0	126	16	142
'18	9	5	14	0	8	6	14
증가율 ('10~'18)	-	-33.1	-23.9	-100.0	-	-31.2	-23.9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7〉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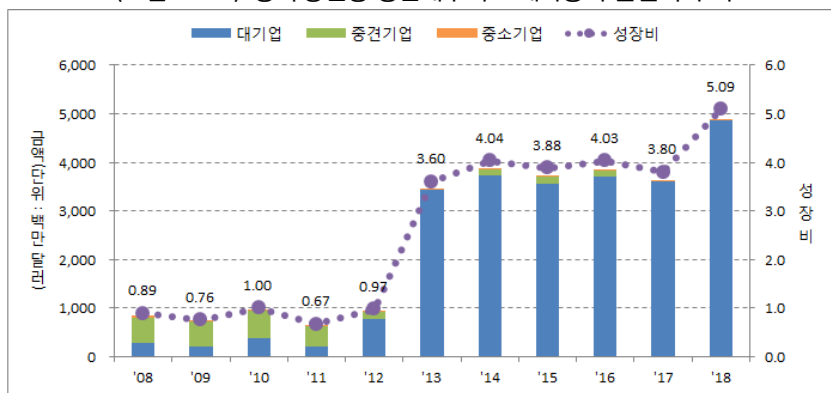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보세가공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보면 '10년 1.00에서 '18년 5.09로 연평균 2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그림 3-38〉). 기타 항만들이 보세가공 부문에서 부진현상을 보인 반면 평택·당진항이 유일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99.7%로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견기업의 경우 '11년까지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이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며 '18년에 와서는 거의 소멸된 수준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8〉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위탁가공 수출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0.24로 연평균 -16.3%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39〉).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8.7%), 중견기업(15.8%), 중소기업(-5.4%) 으로 대기업의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견기업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대기업(23.5%), 중견기업(45.9%), 중소기업(30.6%)로 위탁부문에서는 기업규모별 상호 균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8년에 와서 대기업 실적의 급격한 하락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장 균형적인 시장구도로 볼 수 있다.

〈표 3-3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289	514	47	850	34.0	60.5	5.5
'09	213	507	6	726	29.3	69.8	0.8
'10	391	560	5	956	40.9	58.6	0.5
'11	203	436	4	643	31.6	67.8	0.6
'12	773	145	13	931	83.0	15.6	1.4
'13	3,433	0	7	3,440	99.8	0.0	0.2
'14	3,734	112	13	3,859	96.8	2.9	0.3
'15	3,562	146	3	3,711	96.0	3.9	0.1
'16	3,703	139	13	3,855	96.1	3.6	0.3
'17	3,612	3	15	3,630	99.5	0.1	0.4
'18	4,855	6	9	4,870	99.7	0.1	0.2
증가율 ('10~'18)	37.0	-43.3	7.6	22.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33〉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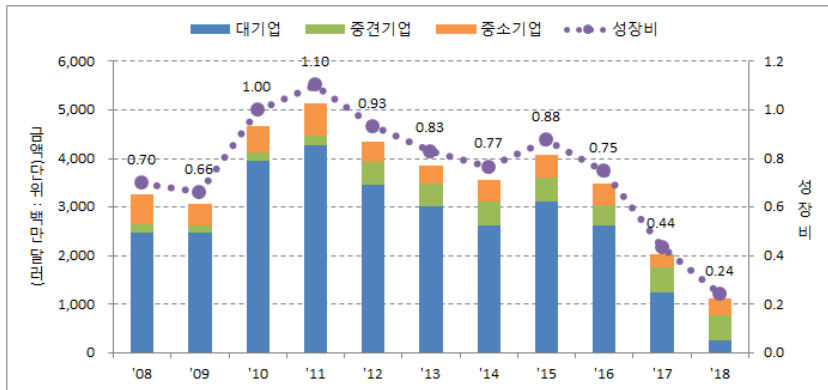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2,482	165	608	3,255	76.3	5.1	18.7
'09	2,473	141	461	3,075	80.4	4.6	15.0
'10	3,961	160	535	4,656	85.1	3.4	11.5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1	4,274	199	655	5,128	83.3	3.9	12.8
'12	3,464	471	404	4,339	79.8	10.9	9.3
'13	3,023	467	371	3,861	78.3	12.1	9.6
'14	2,626	493	445	3,564	73.7	13.8	12.5
'15	3,113	502	466	4,081	76.3	12.3	11.4
'16	2,613	432	439	3,484	75.0	12.4	12.6
'17	1,252	499	275	2,026	61.8	24.6	13.6
'18	265	517	344	1,126	23.5	45.9	30.6
증가율 (’10~’18)	-28.7	15.8	-5.4	-16.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39〉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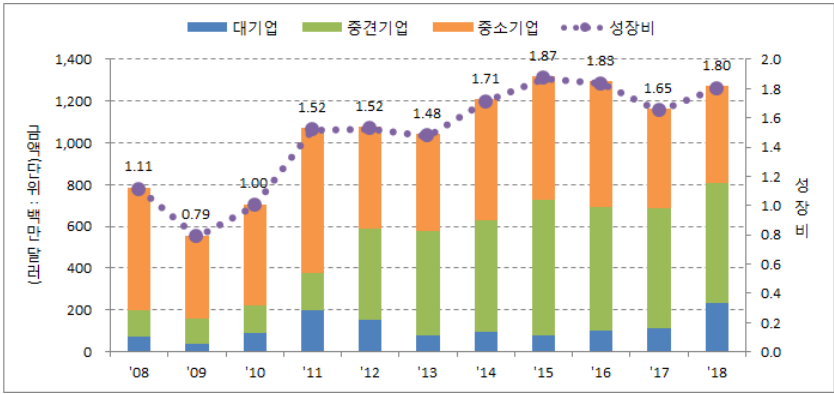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위탁가공 수입 실적 기준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1.80로 연평균 7.6%의 높은 증가율 보이고 있다(〈그림 3-40〉).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3.0%), 중견기업(20.0%), 중소기업(-0.6%) 으로 기업규모별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장점유비중은 낮지만 성장

세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실적이 다소 호조되고 있어 향후 실적에 있어도 긍정적일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전체 실적이 '15년 이후 다소 정체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가공 수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도 보여진다.

〈그림 3-40〉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34〉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위탁가공 수입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70	131	584	785	8.9	16.7	74.4
'09	39	122	394	555	7.0	22.0	71.0
'10	87	134	485	706	12.3	19.0	68.7
'11	199	179	692	1,070	18.6	16.7	64.7
'12	151	438	487	1,076	14.0	40.7	45.3
'13	79	498	465	1,042	7.6	47.8	44.6
'14	93	534	581	1,208	7.7	44.2	48.1
'15	80	648	593	1,321	6.1	49.1	44.9
'16	98	592	605	1,295	7.6	45.7	46.7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17	110	579	474	1,163	9.5	49.8	40.8
'18	231	577	463	1,271	18.2	45.4	36.4
증가율 ('10~'18)	13.0	20.0	-0.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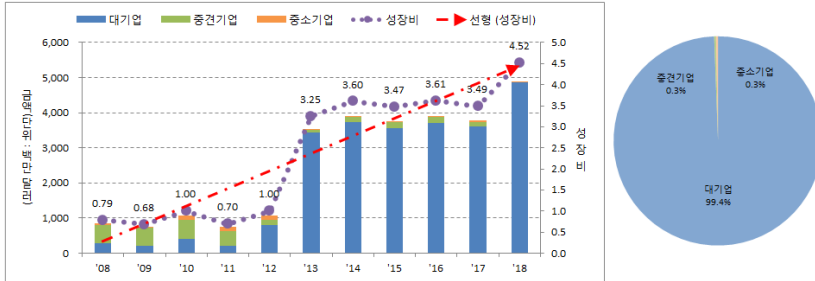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

인천항과 함께 대중국 교역의 주력 항만인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인천항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3-41> 성장비 측면에서 '10년 1.00에서 '18년 4.52로 연평균 20.7%이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의 보세가공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이같이 평가되기는 하지만 대기업(99.4%)에 지나치게 편중된 실적이라는 점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분산화가 있어야 지속적인 잠재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전국 시도 기준에서 평택·당진항이 위치한 충청남도과 수도권이 각각 전체 실적의 55.5%, 26.0%로 총 8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경상북도 13.2%, 충청북도 4.8% 수준으로 평택·당진항 역시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항만배후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항만과 지역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집중현상은 실적추이에서도 나타나는데 '13년에 충청남도의 비중은 46.6% 수준이었으나 '18년에 와서는 55.5%로 크게 증하면서 항만과 항만배후지간 밀접도가 크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3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업규모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대	중견	중소
'08	289	514	47	850	34.0	60.5	5.5
'09	213	507	17	737	28.9	68.8	2.3
'10	397	560	124	1,081	36.7	51.8	11.5
'11	203	436	113	752	27.0	58.0	15.0
'12	798	145	139	1,082	73.8	13.4	12.8
'13	3,438	62	11	3,511	97.9	1.8	0.3
'14	3,734	139	23	3,896	95.8	3.6	0.6
'15	3,562	180	9	3,751	95.0	4.8	0.2
'16	3,703	186	17	3,906	94.8	4.8	0.4
'17	3,612	129	31	3,772	95.8	3.4	0.8
'18	4,855	14	15	4,884	99.4	0.3	0.3
증가율 ('10~'18)	36.7	-36.9	-23.2	20.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3-3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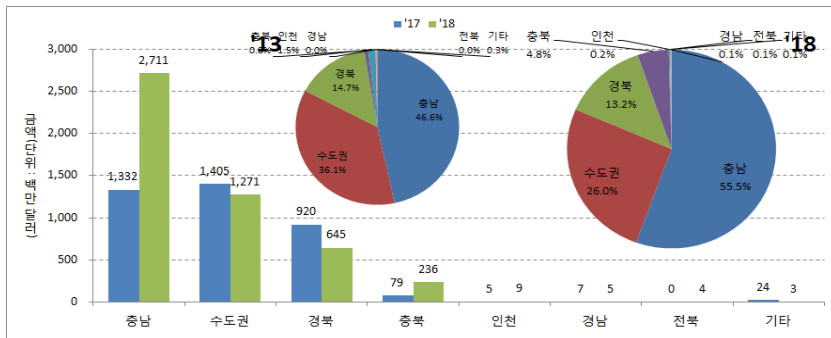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3	'14	'15	'16	'17	'18
1	충남	1,637	1,851	1,706	1,595	1,332	2,711
2	수도권	1,268	1,396	1,513	1,448	1,405	1,271
3	경북	515	582	510	818	920	645
4	충북	28	25	4	9	79	236

구분		'13	'14	'15	'16	'17	'18
5	인천	51	21	10	3	5	9
6	경남	0	2	2	7	7	5
7	전북	1	10	1	22	0	4
8	기타	11	9	4	4	24	3
계		3,511	3,896	3,750	3,906	3,772	4,884
비중(수도권+충남)		82.7	83.3	85.8	77.9	72.6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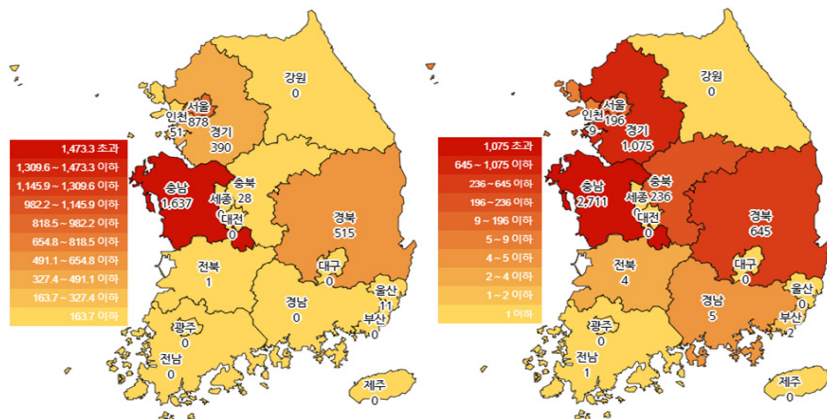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4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3-43〉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지역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포('13년→'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제 4 장

품목별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

본 장에서는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품목별 기준에서 분석해 보았다. 앞서 항만별로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연평균 -4.7%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창출에 기여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비해 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품목별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시에도 어떤 유형의 사업자를 선정하는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창출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목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분석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제1절 품목별 잠재력 분석

1. 부가가치활동 품목 현황

1) 품목별 현황

전국 항만배후지에서 수탁가공과 보세가공을 통해 수출된 품목은 지난 '10~'18년간 HS-Code 4자리 기준에서 분석해 보면 약 600여개에 이른다¹⁹⁾. 그러나 실제 연간 평균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목수는 이보다 1/3 수준인 200여개에 불과하다.

품목별 실적을 보면 상위 3개 품목인 'H8901', 'H9013', 'H8905'이 점유비중에서 각각 37.0%, 17.6%, 16.2%로 두 자리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타 품목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외 1% 이상의 점유비를 가지는 품목수는 추가로 9개가 있어 특정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전국 항만배후지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 달러, %)

구분		누적실적 ('10~'18)	연간평균실적	비중	연평균증가율
1	H8901	234,264,103	26,029,345	37.0	-10.5
2	H9013	111,387,938	12,376,438	17.6	-6.5
3	H8905	102,488,992	11,387,666	16.2	-12.6
4	H8429	25,550,270	2,838,919	4.0	1.5
5	H8517	14,659,557	1,628,840	2.3	-0.9
6	H7308	12,671,735	1,407,971	2.0	29.0
7	H8531	10,764,010	1,196,001	1.7	-35.0

19) '18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항만을 이용한 수탁가공 및 보세가공 수출의 품목수는 666개로 산출

구분		누적실적 (’10~’18)	연간평균실적	비중	연평균증가율
8	H8538	8,527,007	947,445	1.3	34.6
9	H8803	7,828,779	869,864	1.2	14.6
10	H8408	7,752,898	861,433	1.2	-17.7
	기타(600여개)	97,338,627	10,815,403	15.4	
	계	633,233,916	70,359,3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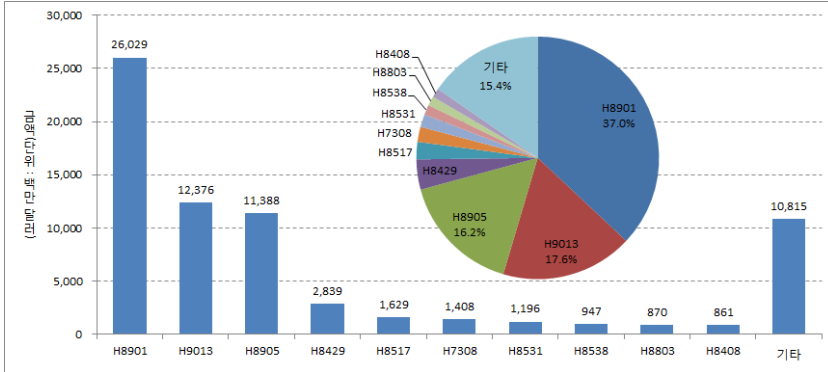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4-2〉 HS-Code 품목명(1)

구분	내용
1 H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이와유사한선박(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 한정한다)
2 H9013	액정디바이스(다른호에서더구체적으로규정한물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diode)는제외한다],그밖의광학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 H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주요항해외의특수기능을가지는그밖의특수선박,부선거(解船渠),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시추대나작업대
4 H8429	자주식(自走式)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shovel) · 엑스캐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loader) · 탬핑머신(tampingmachine) · 로드롤러(roadroller)
5 H8517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와음성 · 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 · 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 · 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의송신용 · 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6 H7308	철강으로만든구조물(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과구조물의부분품[예:다리와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창및이들의틀과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구조물용으로가공한철강으로만든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이와유사한것
7 H8531	전기식음향이나시각신호용기기(예: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 화재경보기). 다만,제8512호나제8530호의것은제외한다.
8 H8538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9 H8803	부분품(제8801호나제8802호의것으로한정한다)
10 H8408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1〉 전국항 항만배후지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한편 상위 3대 품목의 실적비중이 매우 크기는 하나 연간 실적에서 보면 1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가지는 품목수는 37개로 실제 다양한 품목에서 상당수의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 9년간 누적실적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6.9%로 대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6%,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품목수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탁 및 보세가공수출이 대기업에만 절대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3〉 전국 항만배후지 품목별-기업규모별 수출실적

(단위 : 천 달러, %)

구분		누적실적('10~'18)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H8901	204,101,827	28,247,402	1,914,874	234,264,103
2	H9013	106,401,052	4,899,858	87,028	111,387,938
3	H8905	102,406,539	10,267	72,186	102,488,992
4	H8429	15,815,209	9,140,287	594,774	25,550,270

구분		누적실적('10~'18)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	H8517	13,672,516	956,825	30,216	14,659,557
6	H7308	12,319,275	12,226	340,234	12,671,735
7	H8531	10,684,104	78,276	1,630	10,764,010
8	H8538	8,419,452	37,286	70,269	8,527,007
9	H8803	2,680,054	5,073,167	75,558	7,828,779
10	H8408	7,425,835	214,921	112,142	7,752,898
	기타(600여개)	66,085,162	18,461,315	12,792,150	97,338,627
	계	550,011,025	67,131,830	16,091,061	633,233,91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품목별 연평균증가율에 있어서는 지난 8년간 -4.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3.8%), 중견기업(-13.1%), 중소기업(-3.6%)로 중견기업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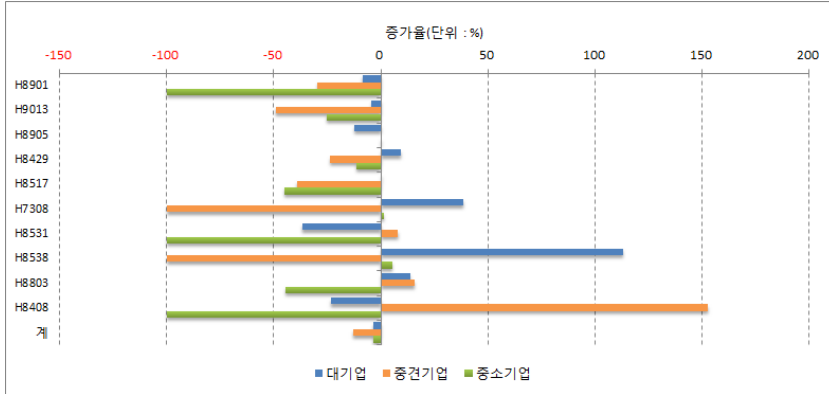
〈표 4-4〉 전국 항만배후지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단위: 천 달러,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1	H8901	-8.8	-29.8	-100.0	-10.5
2	H9013	-4.4	-49.3	-25.0	-6.5
3	H8905	-12.6	0.0	0.0	-12.6
4	H8429	9.2	-23.8	-11.6	1.5
5	H8517	0.4	-39.4	-45.2	-0.9
6	H7308	38.4	-100.0	1.5	29.0
7	H8531	-36.9	7.9	-100.0	-35.0
8	H8538	112.9	-100.0	5.6	34.6
9	H8803	13.5	15.6	-44.4	14.6
10	H8408	-23.6	152.7	-100.0	-17.7
	계	-3.8	-13.1	-3.6	-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2〉 전국항 항만배후지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지역별 분포

상위 10개 품목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H8901*’ 계열(선박류)은 품목의 특성상 조선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남해안 지역의 경남, 울산, 전남에서 대부분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실적의 약 9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주로 인접에 위치한 옥포항(33.4%), 울산항(32.9%), 고현항(16.5%), 목포항(14.2%)을 수출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H9013*’ 계열(액정/광학기기류) 품목은 수도권, 충남, 경북지역에만 국한하여 실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용항만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항(56.1%)과 평택·당진항(23.7%)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부산항(13.8%), 군산항(6.25%)의 이용비중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H8905*’ 계열(특수선박류)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남해안지역인 경남, 전남, 울산지역에 국한하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항만은 고현항(85.7%), 목포항(11.5%), 울산항(2.8%)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H8429*’ 계열(기계류) 품목의 경우 경남, 수도권, 인천에 국한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이용항만은 마산항(52.4%), 울산항(25.9%), 인천항(12.5%), 부산항(7.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 ‘H8517*’ 계열(통신기기류) 품목의 경우 수도권, 충남, 경북, 경남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용항만은 인천항(53.8%), 평택·당진항(44.1%), 부산항(1.7%)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 번째 ‘H7308*’ 계열(철강구조물/부속품류)의 품목의 경우 울산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93.3%)되어 있으며 그 외 경남(6.1%)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항만 역시 울산항(86.6%), 고현항(6.7%), 부산항(6.2%)으로 인접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일곱 번째 ‘H8531*’ 계열(음향기기류) 품목의 경우 충남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용항만의 경우에는 충남지역 항만이 아닌 인접권역의 평택·당진항(51.9%), 인천항(48.0%)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덟 번째 ‘H8538*’ 계열(부분품류) 품목의 경우 경북, 수도권, 경남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용항만의 경우에는 인천항(54.4%), 평택·당진항(36.4%), 부산항(8.9%)로 경북지역 물량의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특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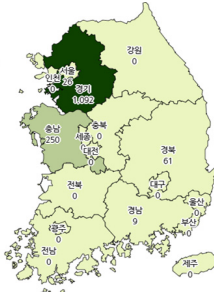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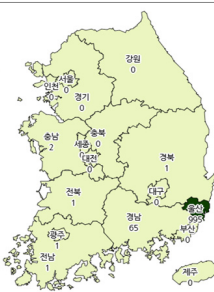
아홉 번째 'H8803*' 계열(부분품류) 품목의 경우 경남과 부산지역에 국한하여 실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용항만은 전량 부산항(100.0%)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열 번째 'H8408*' 계열(내연기관류) 품목의 경우 울산, 경남, 전남, 충북에 널리 퍼져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항만의 경우에는 울산항(48.7%), 마산항(42.7%), 목포항(5.0%), 부산항(3.5%) 등으로 인접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 상위 10대 품목별-지역별 부가가치활동 및 분포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6	'17	'18	분포도	
1	H8901	1	경남	11,760	14,089	7,793	
		2	울산	7,904	6,410	4,963	
		3	전남	4,093	2,451	2,144	
		4	부산	232	358	172	
		5	기타	0	0	0	
		6	충북	0	0	0	
		7	충남	0	0	0	
		8	기타	501	0	0	
		계	24,490	23,308	15,072		
2	H9013	1	수도권	5,377	4,868	4,031	
		2	충남	2,122	2,432	3,080	
		3	경북	1,981	1,351	1,774	
		4	경남	0	0	2	
		5	기타	0	0	0	
		6	충북	0	0	0	
		7	제주	0	0	0	
		8	기타	0	0	0	
		계	9,480	8,651	8,887		

구분			'16	'17	'18	분포도	
3	H8905	1	경남	5,353	15,565	2,719	
		2	전남	0	0	365	
		3	울산	2,322	84	90	
		4	기타	0	0	0	
		5	충북	0	0	0	
		6	충남	0	0	0	
		7	제주	0	0	0	
		8	기타	0	0	0	
		계	7,675	15,649	3,174		
4	H8429	1	경남	787	1,028	1,316	
		2	수도권	0	685	1,048	
		3	인천	271	341	369	
		4	기타	0	0	0	
		5	충북	0	0	0	
		6	충남	0	0	0	
		7	제주	0	0	0	
		8	기타	762	327	0	
		계	1,820	2,381	2,733		
5	H8517	1	수도권	1,623	1,511	1,118	
		2	충남	1	0	250	
		3	경북	28	31	61	
		4	경남	0	0	9	
		5	기타	0	0	0	
		6	충북	0	0	0	
		7	제주	0	0	0	
		8	기타	0	0	0	
		계	1,652	1,542	1,438		
6	H7308	1	울산	2,078	3,531	995	
		2	경남	42	41	65	
		3	충남	0	1	2	
		4	전북	0	11	1	
		5	전남	2	0	1	
		6	광주	22	3	1	
		7	경북	0	0	1	
		8	기타	0	1	0	
		계	2,144	3,588	1,066		

구분				'16	'17	'18	분포도
7	H8531	1	울산	1	0	1	
		2	기타	0	0	0	
		3	충북	0	0	0	
		4	충남	2,696	0	0	
		5	제주	0	0	0	
		6	전북	0	0	0	
		7	전남	0	0	0	
		8	기타	3	1	0	
		계		2,700	1	1	
8	H8538	1	경북	1,511	1,295	201	
		2	수도권	9	7	84	
		3	경남	3	8	7	
		4	울산	7	2	2	
		5	기타	0	0	0	
		6	충북	0	0	0	
		7	충남	0	0	0	
		8	기타	0	0	0	
		계		1,530	1,312	294	
9	H8803	1	경남	815	855	793	
		2	부산	363	320	345	
		3	기타	0	0	0	
		4	충북	0	0	0	
		5	충남	0	0	0	
		6	제주	0	0	0	
		7	전북	0	0	0	
		8	기타	0	0	0	
		계		1,178	1,175	1,138	
10	H8408	1	울산	297	252	153	
		2	경남	179	213	135	
		3	전남	39	69	16	
		4	충북	6	6	8	
		5	대구	0	1	2	
		6	기타	0	0	0	
		7	충남	0	0	0	
		8	기타	0	0	0	
		계		521	541	314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저자 재정리

2. 수탁가공 품목별 잠재력

수탁가공 품목별 실적은 상위 2개 품목인 ‘H8903’, ‘H3808’이 점유비중에서 각각 18.8%, 11.6%로 두 자리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다양한 품목에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연평균증가율에 있어서는 지난 8년간 9.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상위 10대 품목중 연평균 증가율이 2자리수 이상 기록한 품목수가 5개에 이를 정도로 수탁가공 품목의 경쟁력은 나름 대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실적 호조가 눈에 띄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4-6〉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 달러, %)

구분		누적실적 (‘10~’18)	연간평균실적	비중	연평균증가율
1	H8703	3,105,750	345,083	18.8	-10.5
2	H3808	1,924,002	213,778	11.6	-6.5
3	H9027	1,130,542	125,616	6.8	-12.6
4	H2710	1,015,871	112,875	6.1	1.5
5	H7502	781,129	86,792	4.7	-0.9
6	H8486	687,049	76,339	4.2	29.0
7	H3304	505,218	56,135	3.1	-35.0
8	H8542	457,088	50,788	2.8	34.6
9	H2106	453,396	50,377	2.7	14.6
10	H2933	397,591	44,177	2.4	-17.7
	기타	6,073,159	674,795	36.7	
	계	16,530,795	1,836,7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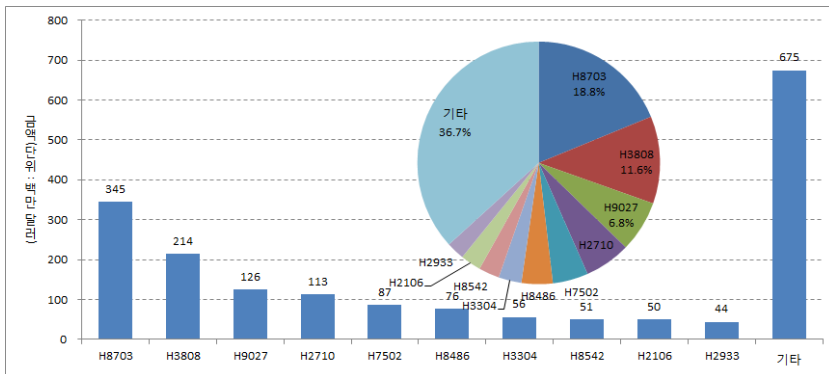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표 4-7〉 HS-Code 품목명(2)

구분	내용
1 H8703	주로사람을수송할수있도록설계된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제8702호의것은제외하며,스테이션왜건(stationwagon)과경주용자동차를포함한다]
2 H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조제품으로한것·제품으로한것(예:황으로처리한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끈끈이)으로한정한다]
3 H9027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매연분석기),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이와유사한것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열·소리·빛의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노출계를포함한다),마이크로톰(microtome)
4 H2710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한다],웨이스트오일(wasteoil)
5 H7502	니켈의괴(塊)
6 H8486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기계와기기,이류의주제9호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그부분품과부속품
7 H3304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용제품류[의약품은제외하며,선스크린(sunscreen)과선탠(suntan)제품류를포함한다],매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pedicure)용제품류
8 H8542	전자집적회로
9 H2106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식료품
10 H2933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3〉 전국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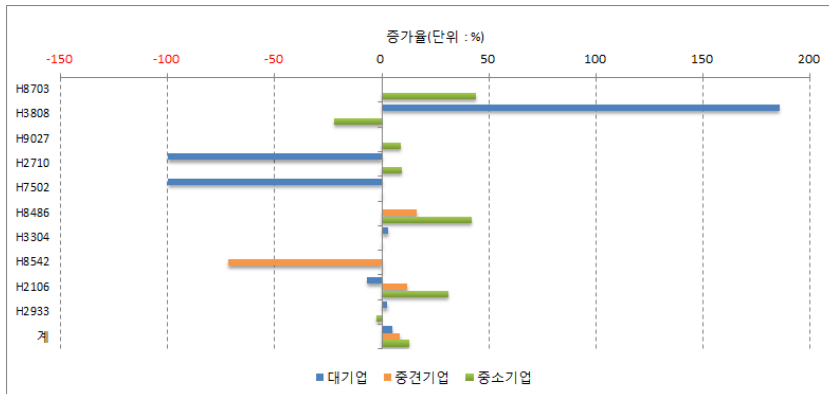
〈표 4-8〉 전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단위 : 천 달러,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1	H8703	0.0	0.0	44.1	44.2
2	H3808	185.5	0.0	-22.5	18.3
3	H9027	0.0	0.0	9.1	47.7
4	H2710	-100.0	0.0	9.3	17.6
5	H7502	-100.0	0.0	0.0	-100.0
6	H8486	0.0	16.2	42.1	28.4
7	H3304	2.9	0.0	0.0	3.5
8	H8542	0.0	-71.9	0.0	-54.8
9	H2106	-6.9	11.8	31.0	-5.5
10	H2933	2.5	0.0	-2.7	0.7
계		4.9	8.3	12.8	9.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4〉 전국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보세가공 품목별 잠재력

수탁가공실적을 제외한 보세가공 품목별 실적은 앞서 분석한 ‘부가가치활동 품목 현황’과 거의 유사한 분석내용을 가진다.

〈표 4-9〉 전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 달러, %)

구분		누적실적 (‘10~’18)	연간평균실적	비중	연평균증가율
1	H8901	234,245,416	26,027,268	38.0	-10.5
2	H9013	111,360,882	12,373,431	18.1	-6.5
3	H8905	102,488,992	11,387,666	16.6	-12.6
4	H8429	25,550,270	2,838,919	4.1	1.5
5	H8517	14,658,786	1,628,754	2.4	-0.9
6	H7308	12,375,840	1,375,093	2.0	29.0
7	H8531	10,761,752	1,195,750	1.7	-35.0
8	H8538	8,522,004	946,889	1.4	34.6
9	H8803	7,805,229	867,248	1.3	14.6
10	H8408	7,752,898	861,433	1.3	-17.7
	기타	81,181,052	9,020,117	13.2	
	계	616,703,121	68,522,56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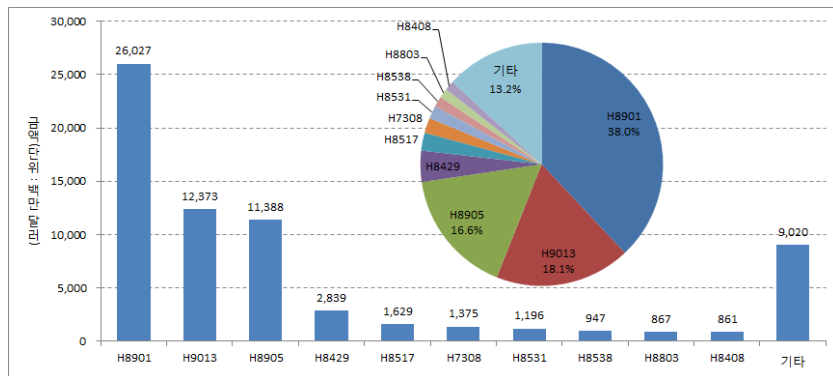
〈표 4-10〉 HS-Code 품목명(3)

구분	내용
1 H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이와유사한선박(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한정한다)
2 H9013	액정디바이스(다른호에서더구체적으로규정한물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diode)는제외한다], 그밖의광학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 H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주요항해외의특수기능을가지는그밖의특수선박, 부선거(解船渠), 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시추대나작업대

구분	내용
4 H8429	자주식(自走式)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loader) · 탬핑머신(tampingmachine) · 로드롤러(roadroller)
5 H8517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와음성 · 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 · 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 · 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의송신용 · 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6 H7308	철강으로만든구조물(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과구조물의부분품[예:다리와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창및이들의틀과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구조물용으로가공한철강으로만든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이와유사한것
7 H8531	전기식음향이나시각신호용기기(예: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 화재경보기).다만,제8512호나제8530호의것은제외한다.
8 H8538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9 H8803	부분품(제8801호나제8802호의것으로한정한다)
10 H8408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5〉 전국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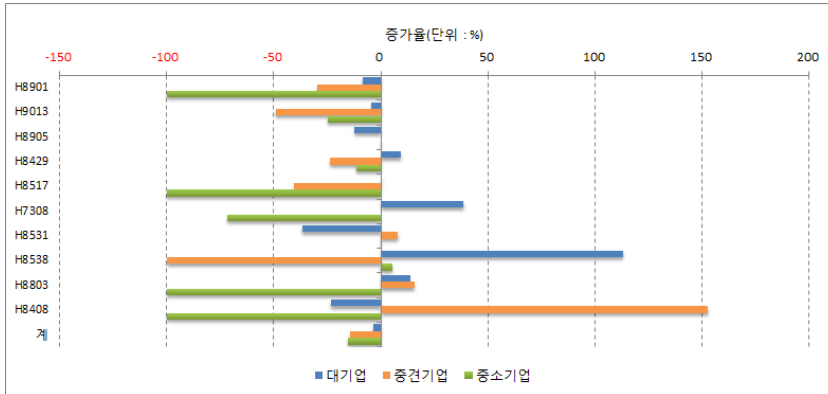
〈표 4-11〉 전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단위 : 천 달러,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1	H8901	-8.8	-29.8	-100.0	-10.5
2	H9013	-4.4	-49.3	-24.7	-6.5
3	H8905	-12.6	0.0	0.0	-12.6
4	H8429	9.2	-23.8	-11.6	1.5
5	H8517	0.4	-40.6	-100.0	-0.9
6	H7308	38.6	0.0	-71.9	29.7
7	H8531	-37.0	7.9	0.0	-35.0
8	H8538	112.9	-100.0	5.4	34.7
9	H8803	13.5	15.5	-100.0	14.6
10	H8408	-23.6	152.7	-100.0	-17.7
계		-3.9	-14.3	-15.4	-5.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6〉 전국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제2절 주요항만의 품목별 잠재력

1. 부산항 품목별 잠재력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탁가공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점유비중은 76.3%으로 특정품목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는 품목수는 64개로 다양한 품목의 수탁가공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세가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위 10대 품목의 실적비중이 74.6%로 높은 편이며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인 품목 역시 118개로 다양한 품목의 보세가공 수출이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단위: 천 달러, %)

수탁가공				보세가공			
구분		실적	비중	구분		실적	비중
1	H3808	370,882	31.4	1	H9013	1,224,303	14.5
2	H8486	171,948	14.6	2	H8803	1,132,155	13.4
3	H7308	64,243	5.4	3	H8529	955,245	11.3
4	H7202	63,914	5.4	4	H8541	892,297	10.6
5	H3304	59,591	5.0	5	H8507	877,410	10.4
6	H2106	49,172	4.2	6	H8701	326,539	3.9
7	H2933	46,728	4.0	7	H9001	273,765	3.2
8	H7606	26,858	2.3	8	H7006	253,450	3.0
9	H8112	25,920	2.2	9	H8429	189,656	2.2
10	H9027	22,477	1.9	10	H8901	171,930	2.0
	기타	279,979	23.7		기타	2,139,633	25.4
	계	1,181,712	100.0		계	8,436,38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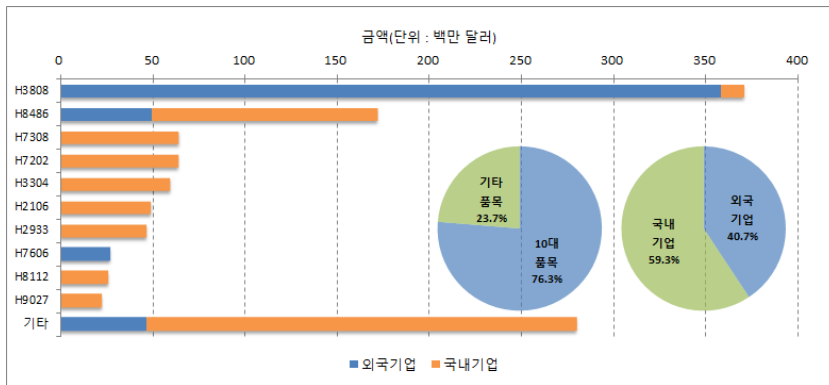
〈표 4-13〉 HS-Code 품목명(부산항)

구분		내용
수 탁 가 공	1	H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 · 조제품으로한것 · 제품으로한것(예:황으로처리한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끈끈이)]으로한정한다]
	2	H8486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기계와기기,이류의주제9호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그부분품과부속품
	3	H7308 철강으로만든구조물(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과구조물의부분품[예:다리외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창및이들의틀과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구조물용으로가공한철강으로만든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이와유사한것
	4	H7202 합금철(ferro-alloy)
	5	H3304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용제품류[의약품은제외하며,선스크린(sunscreen)과선탠(suntan)제품류를포함한다],매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pedicure)용제품류
	6	H2106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식료품
	7	H2933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8	H7606 알루미늄의판 · 시트(sheet) · 스트립(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9	H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hafnium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이것으로만든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10	H9027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예: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나매연분석기),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장력이나이와유사한것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열 · 소리 · 빛의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노출계를포함한다),마이크로톰(microtome)
보 세 가 공	1	H9013 액정디바이스(다른호에서더구체적으로규정한물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제외한다],그밖의광학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	H8803 부분품(제8801호나제8802호의것으로한정한다)
	3	H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에열거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4	H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광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모듈 · 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발광다이오드,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5	H8507 축전기(격리판을포함하며,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인지에상관없다)
	6	H8701 트랙터(제8709호의트랙터는제외한다)
	7	H9001 광섬유와광섬유다발, 제8544호의것외의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만든판, 각종재료로만든렌즈(콘택트렌즈를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그밖의광학용품으로서장착되지않은것(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유리로만든광학용품은제외한다)

구분	내용
8 H7006	주입법·롤법·인상법·취입법에 의한 유리,플로트·연마유리(가공한것)
9 H8429	자주식(自走式)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loader)·탬핑머신(tampingmachine)·로드롤러(roadroller)
10 H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이와유사한선박(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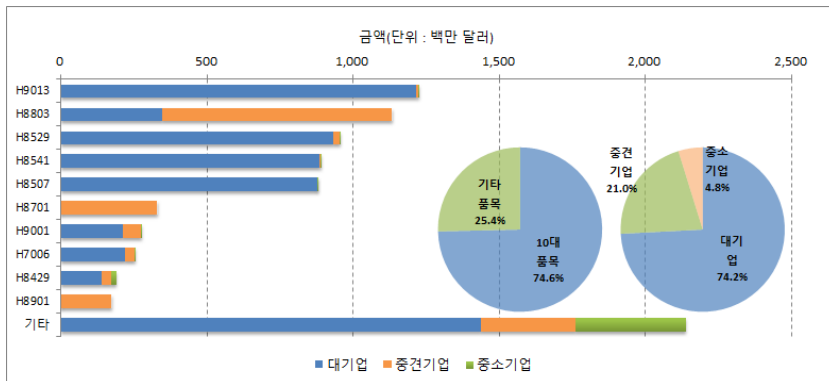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7〉 부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8〉 부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2. 인천항 품목별 잠재력

인천항 수탁가공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점유비중은 98.7%으로 특정품목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품목수는 4개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양한 품목의 수탁가공수출 노력이 필요하다. 보세가공의 경우에도 상위 10대 품목이 94.%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품목에 편중된 보세가공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인 품목에 있어서도 30개에 불과하여 다양한 품목의 보세가공 수출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4〉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단위 : 천 달러, %)

수탁가공				보세가공			
구분	실적	비중		구분	실적	비중	
1	H9027	209,590	85.9	1	H9013	4,988,660	46.7
2	H8541	21,746	8.9	2	H8548	1,155,493	10.8
3	H7409	2,372	1.0	3	H8529	1,124,314	10.5
4	H4104	1,792	0.7	4	H8517	768,447	7.2
5	H8480	1,235	0.5	5	H9001	747,653	7.0
6	H8486	1,195	0.5	6	H8429	341,691	3.2
7	H7407	1,017	0.4	7	H8473	309,362	2.9
8	H7326	650	0.3	8	H8507	243,937	2.3
9	H8443	578	0.2	9	H8542	214,616	2.0
10	H8705	532	0.2	10	H2841	155,129	1.5
	기타	3,207	1.3		기타	638,989	6.0
	계	243,914	100.0		계	10,688,29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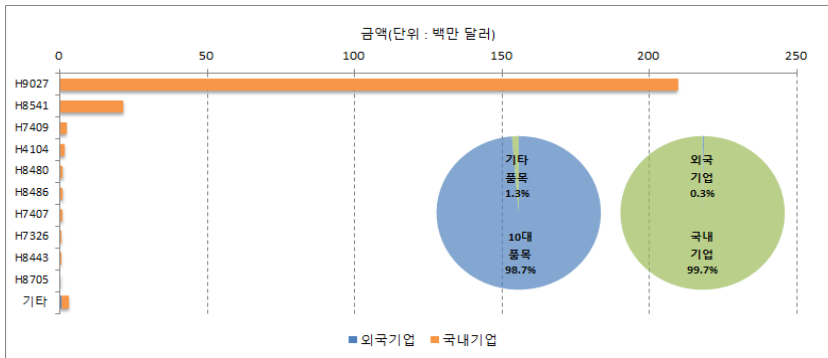
〈표 4-15〉 HS-Code 품목명(인천항)

구분		내용
수 탁 가 공	1 H9027	물리·화학분석용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매연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이와유사한것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열·소리·빛의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노출계를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2 H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다이오스, 감광성반도체다이오스(광전지는모두·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3 H7409	구리의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0.1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4 H4104	소(버팔로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동물의유연처리나크러스트처리한원피[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5 H8480	금속주조용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물질·고무·플라스틱성형용주형
	6 H8486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반도체다이오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기계와기기, 이류의주제9호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 그부분품과부속품
	7 H7407	구리의봉과프로파일(profile)
	8 H7326	철강으로만든그밖의제품
	9 H8443	제8442호의플레이트·실린더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을사용하는인쇄기, 그밖의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조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10 H8705	특수용도차량(주로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설계된것은제외한다)(예:구난차(breakdownlorry)·기중기차(crane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보 세 가 공	1 H9013	액정다이오스(다른호에서더구체적으로규정한물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diode)는제외한다], 그밖의광학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 H8548	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 기기의전기식부분품(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 H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에열거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4 H8517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송신용·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5 H9001	광섬유와광섬유다발, 제8544호의것외의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material)로만든판, 각종재료로만든렌즈(콘택트렌즈를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그밖의광학용품으로서장착되지않은것(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유리로만든광학용품은제외한다)

구분		내용
6	H8429	자주식(自走式)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shovel) · 엑스캐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loader) · 탬핑머신(tampingmachine) · 로드롤러(roadroller)
7	H8473	제8469호부터제8472호까지에해당하는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커버 · 휴대용케이스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8	H8507	축전지(격리판을포함하며,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인지에상관없다)
9	H8542	전자집적회로
10	H2841	산화금속산염이나과산화금속산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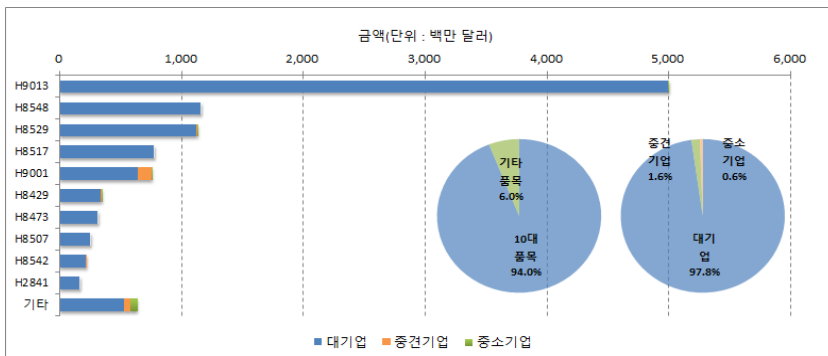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9〉 인천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10〉 인천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3. 여수광양항 품목별 잠재력

여수광양항 수탁가공의 경우 10개 내외의 품목에 대해 수탁가공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품목 모두가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정품목에 특화된 수탁가공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세가공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이 97.2%로 기타 품목의 실적은 그리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단위: 천 달러, %)

수탁가공				보세가공			
구분	실적	비중		구분	실적	비중	
1	H2710	431,084	80.7	1	H7601	26,842	32.5
2	H2603	35,058	6.6	2	H8429	12,330	14.9
3	H2707	28,313	5.3	3	H0505	10,591	12.8
4	H2608	18,113	3.4	4	H7305	7,701	9.3
5	H3808	12,439	2.3	5	H8529	7,484	9.0
6	H7304	2,803	0.5	6	H2503	6,046	7.3
7	H2933	2,787	0.5	7	H8466	5,500	6.6
8	H2616	2,421	0.5	8	H1901	1,511	1.8
9	H2706	1,001	0.2	9	H8504	1,248	1.5
10	H7305	79	0.0	10	H8527	1,121	1.4
	기타	26	0.0		기타	2,341	2.8
	계	534,124	100.0		계	82,71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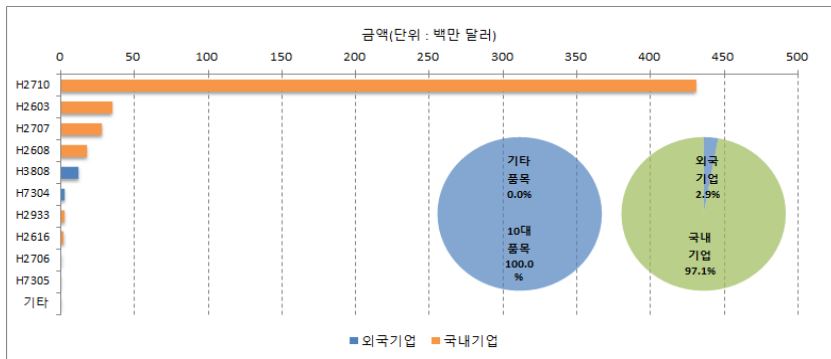
〈표 4-17〉 HS-Code 품목명(여수광양항)

구분		내용
수 탁 가 공	1 H2710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한다],웨이스트오일(wasteoil)
	2 H2603	동광과 그 정광
	3 H2707	고온콜타르(coaltar)의증류물과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방향족(芳香族)성분의중량이비방향족(非芳香族)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4 H2608	아연광과 그 정광
	5 H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 · 조제품으로한것 · 제품으로한것(예:황으로처리한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끈끈이)]으로한정한다]
	6 H7304	철강(주철은제외한다)으로만든관(管)과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한정한다]
	7 H2933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8 H2616	귀금속광과그정광(精鑛)
	9 H2706	석탄 .갈탄 .토탄의 타르 ,기타 광물성타르
	10 H7305	철강으로만든그밖의관(管)[예:용접 · 리벳(rivet)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으로서횡단면이원형이고,바깥지름이406.4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보 세 가 공	1 H7601	알루미늄의괴(塊)
	2 H8429	자주식(自走式)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shovel) · 엑스캐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loader) · 탬핑머신(tampingmachine) · 로드롤러(roadroller)
	3 H0505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불은가죽과그밖의부분,깃털과그부분(가장자리를정리했는지예상관없다),새의솜털(청정 · 소독 · 보존을위한처리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새의깃털이나그부분의가루와웨이스트(waste)
	4 H7305	철강으로만든그밖의관(管)[예:용접 · 리벳(rivet)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으로서횡단면이원형이고,바깥지름이406.4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5 H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에열거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6 H2503	황 (승화 황 , 침강 황 , 콜로이드 황 제외)
	7 H8466	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holder) · 자동개폐식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그밖의공작기계용특수부착물을포함한다]과수지식공구에서사용되는각종툴홀더(toolholder)

구분		내용
8	H1901	맥아추출물(extract)과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가루·전분이나맥아추출물(extract)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대응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9	H8504	변압기·정지형변환기(예:정류기)와유도자
10	H8527	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시계가동일한하우징내에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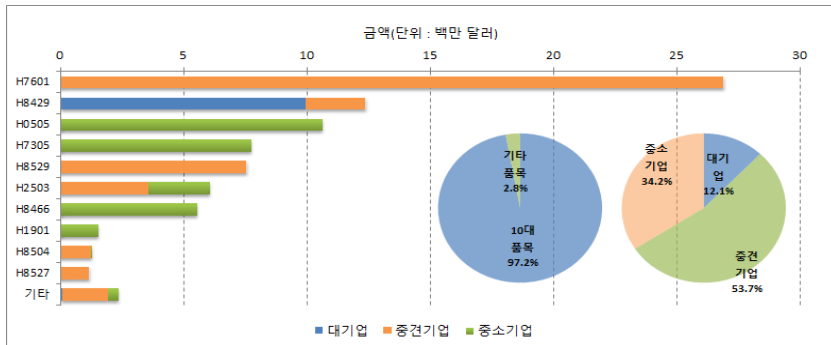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11〉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12〉 여수광양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4. 울산항 품목별 잠재력

울산항 수탁가공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점유비중은 거의 10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품목수는 5개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정품목의 실적만이 있을 뿐이다. 보세가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위 10대 품목이 99.6%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의 보세가공 실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인 품목에서도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8〉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단위 : 천 달러, %)

수탁가공				보세가공			
구분	실적	비중		구분	실적	비중	
1	H8419	45,001	47.1	1	H8901	4,963,173	67.9
2	H2207	28,717	30.1	2	H7308	990,745	13.6
3	H9406	10,467	11.0	3	H8429	707,119	9.7
4	H2710	7,241	7.6	4	H2710	154,337	2.1
5	H8404	1,542	1.6	5	H8408	152,696	2.1
6	H3907	825	0.9	6	H8419	126,000	1.7
7	H8402	645	0.7	7	H8905	90,000	1.2
8	H8414	525	0.5	8	H8502	71,884	1.0
9	H3920	388	0.4	9	H8504	16,992	0.2
10	H7309	181	0.2	10	H8413	8,590	0.1
	기타	3	0.0		기타	29,304	0.4
	계	95,535	100.0		계	7,310,84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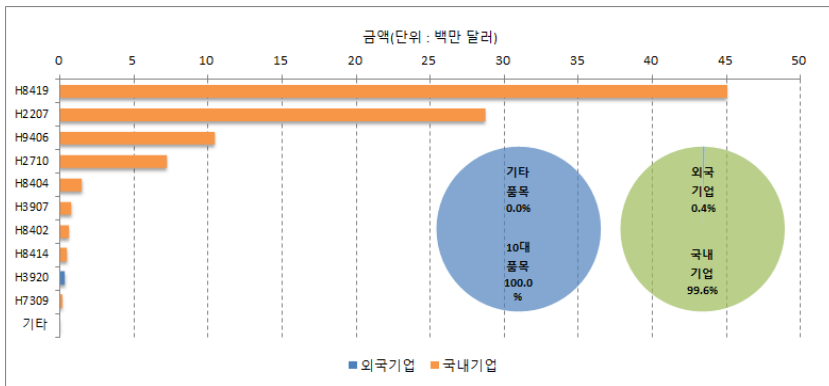
〈표 4-19〉 HS-Code 품목명(울산항)

구분		내용
수 탁 가 공	1 H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 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물가열기
	2 H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 없다)
	3 H9406	조립식 건물
	4 H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 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5 H8404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 기기(예: 연료 절약기·과열기·그를 음 제거기·가스 회수기)와 증기 원동기 용 증축기
	6 H3907	폴리아세탈수지·그밖의 폴리 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 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 아릴 에스테르와 그밖의 폴리 에스테르[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7 H8402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 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 난방용 온수 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 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H8414	기체 펌프나 진공 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9 H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H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용적이 30 L 초과)
보 세 가 공	1 H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2 H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 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3 H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 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캐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4 H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 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5 H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엔진이나 세미 디젤 엔진)
	6 H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 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물가열기

구분			내용
	7	H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주요항해외의특수기능을가지는그밖의특수선박,부선거(艇船渠),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시추대나작업대
	8	H8502	발전세트와회전변환기
	9	H8504	변압기 · 정지형변환기(예:정류기)와유도자
	10	H8413	액체펌프(계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와액체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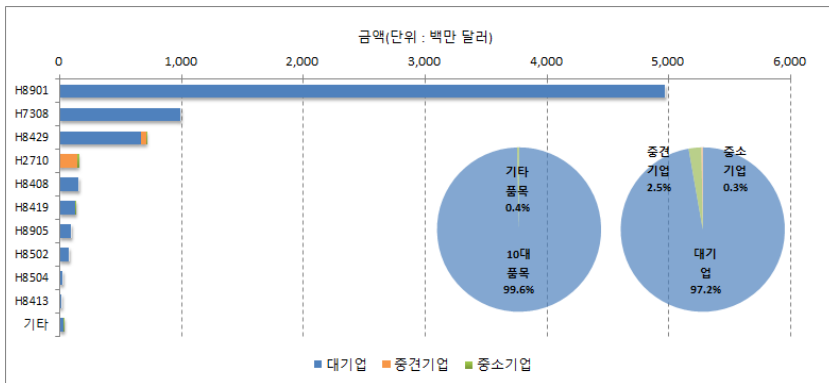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13〉 울산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14〉 울산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5. 평택·당진항 품목별 잠재력

평택·당진항 수탁가공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점유비중은 99.3%으로 특정품목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품목수는 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세가공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이 96.8% 비중을 차지한다.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인 품목은 26개로 비교적 타 항만에 비해서는 품목이 다양하며 실적 또한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표 4-20〉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 및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2018)

(단위 : 천 달러, %)

수탁가공				보세가공			
구분		실적	비중	구분		실적	비중
1	H8479	5,755	41.8	1	H9013	2,099,336	43.1
2	H7305	2,265	16.4	2	H8548	878,813	18.0
3	H7308	1,978	14.4	3	H8517	638,464	13.1
4	H8486	1,386	10.1	4	H9001	362,448	7.4
5	H8416	879	6.4	5	H8507	358,376	7.4
6	H8419	753	5.5	6	H8538	116,172	2.4
7	H7409	199	1.4	7	H8473	94,787	1.9
8	H6909	190	1.4	8	H8542	87,898	1.8
9	H8704	157	1.1	9	H3920	40,457	0.8
10	H8441	108	0.8	10	H8529	37,904	0.8
	기타	102	0.7		기타	154,921	3.2
	계	13,772	100.0		계	4,869,57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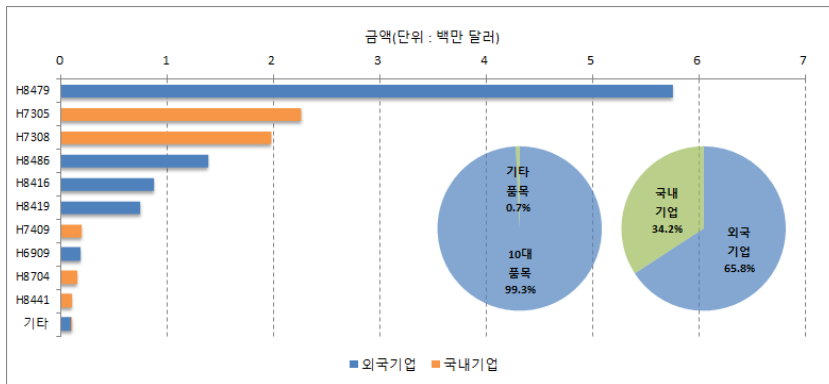
〈표 4-21〉 HS-Code 품목명(평택·당진항)

구분		내용
수 탁 가 공	1 H8479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기계류(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2 H7305	철강으로만든그밖의관(管)[예:용접·리벳(rivet)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으로서횡단면이원형이고,바깥지름이406.4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3 H7308	철강으로만든구조물(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과구조물의부분품[예:다리와교량·수문·탐·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창및이들의틀과문지방·셔터·난간·기둥,구조물용으로공한철강으로만든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이와유사한것]
	4 H8486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기계와기기,이류의주제9호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그부분품과부속품
	5 H8416	액체연료·잘게부순고체연료·기계연료를사용하는노(爐)용버너,기계식스토커(stoker)[이들의기계식불판·기계식회(灰)배출기와이와유사한기기를포함한다]
	6 H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그밖의온도변화에따른방법으로재료를처리하는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노(爐)와오븐과그밖의장비는제외한다),실험실용을포함하며일반적으로가정용으로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와전기가열식이아닌즉시식이나저장식물가열기
	7 H7409	구리의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0.1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8 H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그밖의공업용도자제품,농업용도자제품과이와유사한용기,물품의수송용·포장용으로사용하는도자제의항아리·단지와이와유사한제품
	9 H8704	화물자동차
	10 H8441	그밖의제지용펄프·종이·판지의가공기계(각종절단기를포함한다)
보 세 가 공	1 H9013	액정디바이스(다른호에서더구체적으로규정한물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제외한다],그밖의광학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 H8548	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기기의전기식부분품(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 H8517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와음성·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송신용·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4 H9001	광섬유와광섬유다발,제8544호의것외의광섬유케이블,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만든판,각종재료로만든렌즈(콘택트렌즈를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그밖의광학용품으로서장착되지않은것(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유리로만든광학용품은제외한다)
	5 H8507	축전지(격리판을포함하며,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인지에상관없다)
	6 H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7 H8473	제8469호부터제8472호까지에해당하는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구분	내용
8 H8542	전자집적회로
9 H3920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셀룰러가아닌것으로서그밖의재료로보강·적층·지지하거나와 유사하게결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10 H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에열거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 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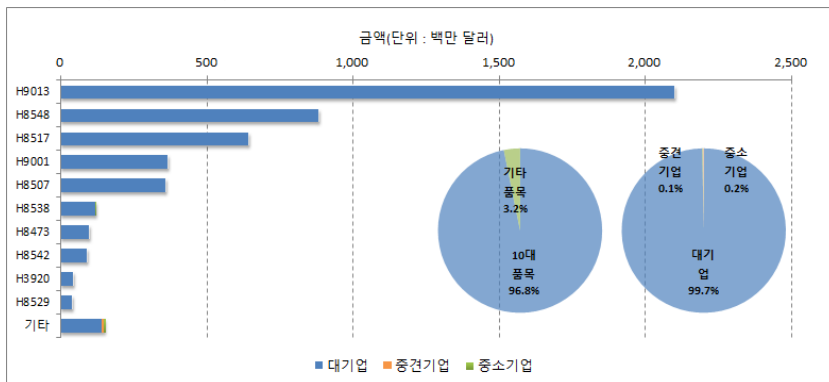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1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수탁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그림 4-1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지 보세가공 품목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원시자료, 저자 재정리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수출입 무역정보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11년 이후 감소세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잠재력에 대해 지난 10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전까지는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11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10년을 기준값 1.00로 설정할 경우 '18년 현재 0.68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11년 1.09의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현

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잠재력은 '18년 0.63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부산항의 최근 3년('16~'18)간의 실적에서는 '16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8년까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향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주요 항만에 편중

두 번째,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살펴본 결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의 3개 항만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만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가진 항만은 울산항으로 석유화학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최근 '18년 실적에서는 울산항의 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부산항과 인천항이 국내 1, 2위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에는 '14년 이후부터 부산항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져 국내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1위 무역항인 부산항의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비중이 그간 상당부분 약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항이 수도권을 인접에 두고 있고 대중국 교역에 유리한 입지적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가공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중견·중소기업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지속 감소

세 번째는 중견·중소기업의 국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분석결과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까지는 20%내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최근 5년간은 10%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10%대 중반수준의 점유율을 가졌으나 최근 3년간 실적에서는 10% 미만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크게 약화된 현상을 보였다. 다만,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가장 대표하는 수탁가공수출 시장부문에 있어서는 항만을 통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중소기업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항만과 항만배후지간 지리적 인접성 점진적 약화

네 번째는 항만배후지가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되는 경향이 강해가는 하나 이러한 현상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만배후지는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거리의 인접성은 정보통신과 교통운송수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항만과 항만배후지간 지리적 인접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역시 전국 시도 분포비중에서도 나타났듯이 특정지역의 집중현상이 완화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에는 부산항이 위치한 부산지역과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잠재력 비중이 '1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항만과 항만배후지간 지리적 인접성은 과거와 같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항만과 항만도시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의 기반이 그만큼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주요 도시 인근에 위치한 항만에 대해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5. 국내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해외 유출 심화

마지막으로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가공무역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탁가공 수출(국외 가공을 위해 수출)과 수입(국외 가공후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위탁가공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에 수입·소비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최종 가공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국외의 저렴한 가공비용의 장점으로 매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부가가치활동의 해외 유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활동을 국내로 환원시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에 관련한 정책적 노력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제고 위해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노력 필요

우리나라 경제구조 여건상 대기업의 역할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분석에서도 우리나라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의 90% 이상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비중도 10%내외임을 감안하면 이에 향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향만배후지의 핵심입지라 할 수 있는 향만배후단지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입주기회를 주는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향만배후단지내 입주 기업 선정은 사업능력, 물량유치, 고용 등 기대효과가 큰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이 입주가능성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세계 산업의 큰 이슈인 4차산업 혁명과 더불어 스타트업 활성화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국내 제도 여건상 스타트업 사업은 향만배후단지내에 입주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투자기업 못지않게 국내기업 지원 강화 노력도 필요

앞서 분석한 내용에서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을 가장 대표하는 수탁 가공수출 실적을 추이를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못지않게 국내기업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제고 측면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항만배후단지나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우대 적용하는 기존 각종 혜택에 대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구조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존 제도의 검토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수탁 가공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활동 범위 개선 필요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이 관점에서는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비단 제한된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항만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도시권역까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홍콩의 경우 현재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이 지역 전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홍콩의 연간 수출액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하면 부가가치

활동 제고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정의 확대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변화를 정례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단하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2012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2008~2018.

관세청, 『손에 잡히는 수출통관 A to Z』, 2016.

〈관련 문헌〉

관세무역개발원, 『우리나라의 임가공 무역 변화 분석』, 2011.

관세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통관기획과, 2017.

국토연구원, 『유통단지내 부가가치물류기능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29권, 국토개발연구원, 2000.

국토연구원,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창출 방안 연구』, 국토연구 2007-10, 2007.

민혁기·김재덕·신현수, 『글로벌 무역 정세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전략』, 산업연구원, 2017.

손병석·김태복, 『물류센터의 부가가치활동에 대한 고찰 및 사례』, 물류학회지, 제18권 제2호, pp.77~103, 2008.

손병석·김운정·김태복, 『부가가치 물류의 분석적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4권 제1호, pp.61~83, 2008.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 한국무역협회 IIT Trade Focus, Vol. No. 19, 2017.

『한국수출 새로운 4.0시대를 열어라』, 한국무역협회 IIT Trade Focus, Vol. No. 47,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세연구 17-03,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연구』, 현안연구 2018-12.

현대경제연구원, 『가공·중계무역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경제주평, 15-28(통권 649호), 2015.

〈인터넷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kts/statCode/ItemAllCodeList.screen>)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검색일 : 2019.06.25.)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097&cid=40942> (검색일 : 2019.06.25.)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행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량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드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승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최지현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사업

인 쇄 | 2019년 10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10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애드원플러스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

